



제18회 2015 부산국제관광전
45개국, 250개 기관 430개 부스 설치
세계 각국대사, 주한관광청등이 참석,
부산의 관광활성화에 큰 획을 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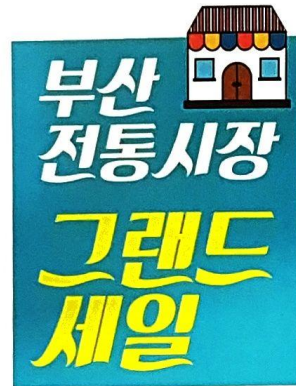
Grand Sale

Busan Traditional Market



부산 24개 전통시장에서 고객 감사세일, 경품증정, 특가판매 등 다양한 행사 개최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가득한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보세요!



고객에게 혜택을!
전통시장엔 활력을!

행사개요

- (행사내용) 고객 감사세일, 특가판매, 경품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진행
- (행사일정) 추석명절(9월), 김장철(11월) 등 성수기 집중 실시
- (참여시장) 전국 300개, 부산 24개 주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참여
-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2개 금융기관에서 10% 할인판매(9.25까지)

시장별 행사내용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전통시장 블로그 '북적북적 시장이야기'를 통해 안내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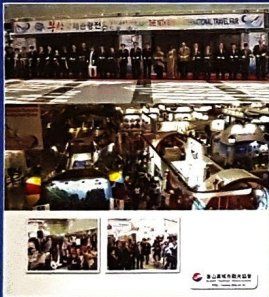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도시 네트워크
TPO 회원 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한국인동, 부산, 부산 중구, 부여, 청원, 춘천, 대구, 대전, 동해, 강릉, 거제, 김해, 광주, 경주, 하동, 익산, 인천, 제주, 전주, 남해, 포항, 속초, 성남, 통영, 울산, 영주
- 중국 청두, 다롄, 광저우, 항저우, 칭다오, 산야, 상하이, 선양, 우저우, 톈진, 우루무치, 웨이하이, 옌타이
- 일본 후쿠오카, 가고시마, 키리큐슈, 쿠미모토, 미야자키, 나가사키, 오사카, 사세보, 시모노세키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 말레이시아 조지타운, 이포, 코타키나발루, 멜라카
- 베트남 다낭, 하이퐁, 하노이, 호치민
- 태국 방콕
- 필리핀 마닐라
- 타이완 가오슝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이르쿠츠크



발행·편집인 이태섭
 편집위원 손해식, 이평규, 김중규, 이해원, 김봉오
 편집국장 박성하
 취재기자 이효영 (김대현, 김무용 기자)
 발행일 2015년 9월 25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동라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_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243번길 38
 TEL (051)463-3111, 463-3080 FAX (051)463-0004
 편집실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10 석현빌딩 2층
 TEL (051)469-3563 FAX (051)466-8062
 E-mail, bfjbusan@hanmail.net
 편집·디자인 보문디자인 TEL (051)469-3563
 http://www.bomoon.kr



표지 _ 제18회 2015 부산국제관광전

- 05 제18회 부산국제관광전
- 08 관광부산 투어리즘 뉴스
- 10 부산에서 행해지는 축제
- 12 부산관광그랜드세일
- 13 부산방문 외국인 관광객 전년대비 8.7% 감소
- 14 제7회 국제외로관광컨벤션 성료
- 15 아시아 최대규모 부산항 새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 16 2015 BIFF, 75개국 304편 음악의 향연 펼친다
- 18 감천문화마을을 이모저모
- 20 산복도로 아외극장 '옥상 달빛극장' 생겼다
- 21 산복도로 순환 투어버스, 운행 횟수·코스 더 늘렸다
- 22 지상최대, 최고의 제11회 부산세계 불꽃축제 향연 펼쳐
- 24 2015 부산~후쿠오카 공동프로모션 펼쳐
- 25 부산항 크루즈 모항 변신위해 크루즈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 26 북항 재개발 지역, 카지노 복합리조트 후보지에 뽑혀
- 27 부울경 관동 철길 따라 철로별 W-라인 프로젝트 사업추진
- 28 해운대 동백섬 부산 대표 관광지로 탈바꿈
- 29 신세계, 센텀시티에 대규모 세계 최고수준 고급호텔 건립
- 30 영도대교 도개 낮 12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
- 31 문화공연 결집인 '조랑이바구 야시장' 부산 새 명소로 등장
- 32 올해 바다미술제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개최
- 33 가야 김수로왕 인도공주 허황옥 신항길 재현 축제
- 34 수영강~광안리해수욕장 일원 수륙양용 버스 운행
- 35 청사포 해안에 하늘전망대 조성 추진
- 36 김해국제공항 개항 이래 미추노선 운항 개설
- 37 부산관광회관 건립에 즈음하여
- 38 미안마 황금바위
- 41 호텔가소식
- 42 가고시마



제18회 2015 관광인의 큰잔치

벅스코서 개최된 부산국제관광전 성황리에 막내려

국내 147개 기관 / 업체 298개 부스
 국외 103개 기관 / 업체 132개 부스
 45개국 250개 기관 430개 부스 설치

세계 어느나라의 생생한 문화와 여행정보를 한자리에서 보고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제18회 부산국제관광전(BITF)이 지난 11일~14일 까지 해운대 벅스코에서 개최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이번 국제관광전에는 각국의 관광자원소개, 관광정보교환, 관광홍보 마테팅을 교류하는 자리였다.

개막식에는 부산지역 주요기관장, 세계 각국의 대사 및 주한 관광청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국내 매력적인 관광명소를 빠짐없이 소개하는 '국내관광홍보관', 해외 40여개국의 색다른 문화와 관광지를 즐길 수 있는 '해외관광홍보관',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행상품 특별판매관' 각종 관광정보를 얻을 수 있는 '관광지식정보교류관' 다양하고 특별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관' 등 전시행사도 열렸다. 특히 대형 아웃바운드여행사와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및 기타 관광업체가 교류하는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는 지역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자리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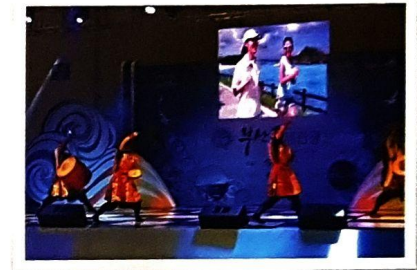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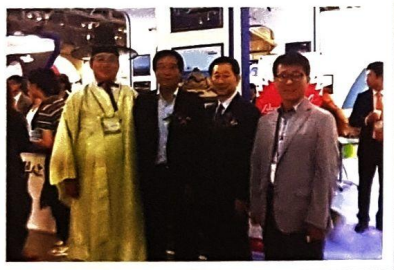
올해는 모두 세계 45개국에서 250개 업체가 430개 부스에 참가 하여 홍보관을 운영하였으며, 일본, 태국, 필리핀 그리고 아랍권에서 초청한 바이어 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B2B 트레이블마트, 세계음식페스티벌, 관광서비스경진대회, KNN TV 특별방송, 여행상품특별판매관, 참가국 대사와의 만남, 그리고 부산 지역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퀴즈대회, 유학생 골든벨 대회 등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행사가 함께 열려, 10만 2천 여명에 달하는 많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여행정보를 수집하고 색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등 유익하고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었다.

특히, 올해는 초청 바이어의 국가를 대폭 확대하여 일본 3명, 태국 2명, 중동 5명으로 총 12명의 바이어와 국내 20여개 관광유관 기관의 1:1 비즈니스를 펼치는 B2B트레이블마트를 9월 11일과 13일 2일에 걸쳐 확대 진행하여 150여건의 상담을 통한 잠재적 관광상품을 발굴했다.

또한, 올해 새롭게 선보인 유학생골든벨대회를 통하여 외국 유학생들이 약 50여개의 퀴즈 서바이벌을 진행하였고, 부산에 대한 정보와 부산관광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나아가 부산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 유학생과 관계자 모두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년 부산국제관광전은 국내외 각 부스에서 다양한 행사를 접하면서 다양한 여행정보를 직접 구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또한 모두투어, 레드캡투어 그리고 외국에서 참가한 오지탐험 여행상품 취급업체 등 6개 여행사 부스에서 박람회 특별할인 상품을 직접 상담, 구입 할 수 있어서 더욱 실질적인 관광전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외에 '꽃보다 부산, 핫(HOT)한 부산을 담아라'를 주제로 '제7회 부산관광 UCC 전국공모전' 입상작 상영, '제16회 부산관광사진 전국공모전' 입상작 전시, 인도·네팔·고테말라·페루·러시아·터키·슬로바키아 등 11개국의 이색적인 먹거리를 판매하는 '세계음식페스티벌', 칵테일 조주, 커피 바리스타, 카지노 딜러 분야 전국 고교 관광과 학생의 '관광서비스 경진대회', 중국·일본·괌·인도네시아 등 '세계전통민속공연' 등도 열린다.



2015년 제16회 부산관광사진 전국공모전 대상작

관광식당업·일반여행업 청도에서 공동 워크숍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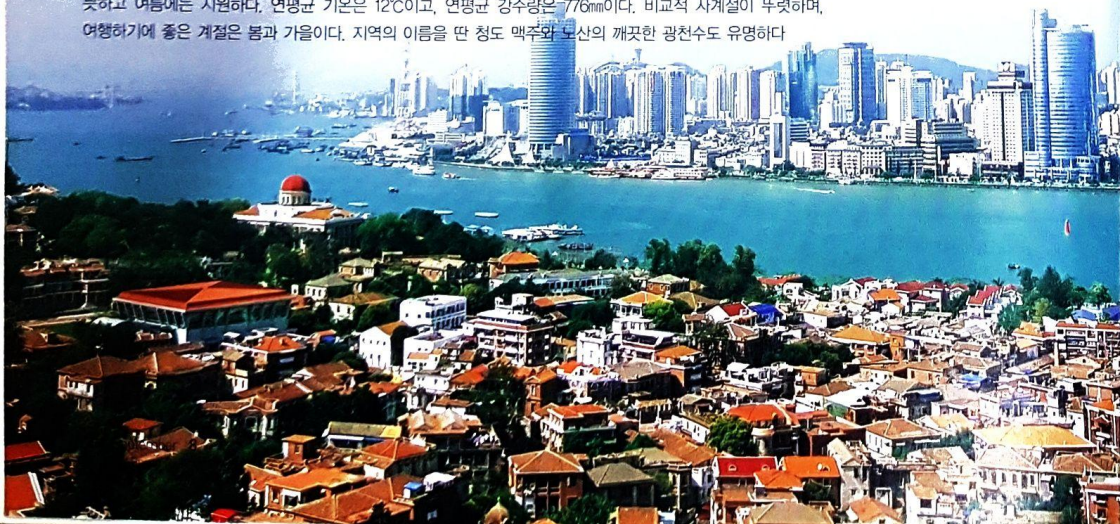
관광식당업 위원회(위원장 이태섭)와 일반여행업 위원회(위원장 강준구) 15명은 지난 9월 15일부터 2박 3일간 중국 청도에서 공동 워크숍을 진행 했다.

진행일정은 청도 주요 관광지 독일총독관저, 소어산, 5·4광장, 올림픽 요트 경기장, 청도시 박물관 등을 시찰하고, 양 위원회 연석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간 항시 필요성이 제기 되었던 일반여행업과 관광식당업의 연석회의가 개최 되어 상당히 기쁘다는 두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양 업계 간 열띤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인바운드 여행업과 관광식당업은 때려야 떨 수 없는 관계임을 재확인 하고, 상호 송객 계약 조건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논의 되었다. 이태섭 위원장은 이런 만남의 시간을 자주 가져 양 업종간의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 하여 부산 관광발전에 앞장서자고 다짐 했다.

칭다오(靑島)는 중국 북부에서 제일가는 천연항 가운데 하나로, 산둥 반도 남쪽 해안에 있으며 자오저우 만 동쪽 어귀에 있다. 이 만은 혹독하게 추운 겨울에 때로 얼어붙기도 하지만, 대형 선박은 언제나 드나들 수 있다. 본래 죽목현에 속한 보잘것없는 어촌이었으나, 청대(1644~1911)에 칭다오커우라는 세관이 세워지면서 대규모 정크 무역이 발전했다. 1880년대 북양함대를 창설하면서 중국 정부는 칭다오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곳에 소규모 해군 보급기지와 요새를 설치했다.

1897년 독일 정부는 자국 선교사 피살사건을 구실로 군대를 급파해 칭다오를 점령, 1898년 독일에 의해 개항된 이후 급속도의 성장을 이루었고, 그 영향으로 도시가 마치 작은 독일에 온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이 이유 때문에 '중국속의 유럽'이라는 애칭도 갖고 있다.

중국에서 네 번째로 큰 항구 도시로서, 지방 정부와 동등한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 도시 전체의 면적은 10,654㎢이며, 총 679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성 기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 연평균 기온은 12℃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776mm이다.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하며, 여행하기에 좋은 계절은 봄과 가을이다. 지역의 이름을 딴 청도 맥주와 도시의 깨끗한 광천수도 유명하다



효고현 부산 방문단 14명 부산 시관광협회예방



효고현 관광 방문단(단장 공익사단법인 효고투어리즘협회 니시무라 하지메 이사장) 14명은 9월21일 부산시관광협회 사무국을 방문하여 효고현의 관광과 음식을 소개하는 설명회 시간을 가졌다. 방문단은 효고현의 유명한 온천 시설, 고베관광, 교통 정보 등 최신정보를 전달하고, 양 지역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견 교환의 시간도 가졌다.

관광협회 이태섭 회장과 각 여행업 위원장 (일반여행업 강준구, 국내 여행업 장순복, 국외 여행업 서학영) 은 효고현의 부산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효고현의 매력적인 관광정보를 지난 한일 역사와 엮어 한국 관광객에게 어필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 의견 교환회에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정책,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한 프로모션, 스마트폰을 활용한 관광정보 전달, 부산시와 효고현의 관광교류 활성화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끝으로 이태섭 회장은 반드시 효고현을 방문하여 상호 교류의 시간을 가지자고 화답 하였다.

제2회 쓰촨(四川)성 국제관광 교역 박람회 참가



중국국가여유국이 주최하여 쓰촨성 낙산 아미산시에서 2015년 9월 21일부터 동월 26일까지 제2회 쓰촨 국제관광교역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부산시관광협회는 초원국제여행사 유연국 대표를 비롯하여 9개 업체 12명(한국25명)이 참가 지원하였다. 5박 6일 동안 아미산, 금년사, 낙산대불, 대불선원 등 쓰촨 우수 관광노선답사와 함께 일대일 비즈니스 교역상담회 시간을 가졌으며 이번 행사에는 총 44개국 491명이 해외바이어로 등록·참가하였다.

부산에서 행해지는 축제

부산은 천혜의 자연조건과 해양성·개방성·역동성·정체성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도시

Festival

부산 지역 축제의 특징

부산에서의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은 1995년 지방 자치제 실시로 민선 단체장의 시대가 열리고 동시에 1996년부터 부산 바다 축제, 부산 국제 영화제, 아시안 위크 등 국제적 규모의 문화 행사를 기획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이전의 해운대 바다 축제, 자갈치 축제, 동래 총렬제 등 구 단위의 지역 축제, 부산 시민의 날과 연계된 부산포 축제가 있긴 하였지만 1996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부산 지역 축제가 시작되어, 1997년의 동아시아 경기 대회, 2002년 아시안 게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밑거름을 만들고 부산의 문화적 저력을 다져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당시의 축제 문화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의 증가는 민선 자치 단체장의 효과적인 업적 과시라는 정치적 배경도 있긴 하지만 지역의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서비스 산업과 관광 산업의 진흥을 통한 초보적인 도시 발전 전략이 고려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대규모의 국제 행사를 앞두고

부산의 국제적인 위상을 보여 줄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사전 점검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부산이 아름다운 바다를 가진 국제적인 관광 휴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심어 주고자 바다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다.

부산의 축제 문화가 지난 10여 년간 양적인 측면에서나 질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상당수의 축제들이 해를 거듭하면서 내용이 충실해지고 있고 국내외에서의 명성도 높아지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전문가와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이기보다는 단순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시민 사회의 여론과 불만한 시선 역시 병존하였고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운영 주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어 왔다.

다수의 지역 축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과 인력의 투자에 비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문화 가치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부산 지역의 축제 문화에 일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늘 제기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뛰어난 천혜의 자연 조건과 해양성, 개방성, 역동성을 정체성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해양 도시이다. 동북아 해양 물류 도시인 부산에서 만들어지는 축제는 지역성과 동시에 국제성을 담보하는 동북아 문화 교류의 중심성을 반드시 획득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부산의 축제 문화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유형에 따른 부산 축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전국적으로 1,000여 개에 가까운 지역 축제들이 생기거나 없어지면서 연중 벌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이나 종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하다. 이러한 지역 축제들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살펴보면 크게 첫째, 주민 화합형 오락성 축제, 둘째, 예술 창작 중심의 문화 예술제, 셋째, 지역 상품과 연계한 문화 관광형 축제, 넷째, 전통 문화제, 세시 풍습, 인물 등에 근거한 전통 문화 축제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실제 현장에서는 각각의 유형에 충실한 소수의 축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이러한 유형의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분은 주최 축의 장기적인 추진 전략과 축제 명칭, 홍보,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상호 차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유형의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부산의 지역 축제들을 유형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 화합 축제로 낙동강 1,300리 구포 나루 대축제 [북구], 낙동강 예코 문화 축제 [사상구], 동백섬 문화 관광 축제 [해운대구], 사상 강변 축제 [사상구], 오륙도 축제 [남구], 연제 한미당 축제 [연제구], 강서 낙동강 갈대꽃 축제 [강서구], 청학동 벚꽃 축제 [영도구], 태종대 수국 축제 [영도구], 감천 문화 마을 골목 축제 [사상구], 구덕골 문화 예술제 [서구], 삼락 벚꽃 축제 [사상구], 선두구동 행복 마을 축제 [금정구]가 있다.

둘째 문화 예술 축제로 40계단 문화 축제 [중구], 달맞이 언덕 철학 축제 [해운대구], 보수동 책방 골목 축제 [중구], 광대 연극제 [수영구], 금정산 생령 문화 축제 [금정구], 차성 문화제 [기장군], 임랑 대학 가요제 [기장군], 가장 갯마을 마당극제 [기장군]가 있다.

셋째 문화 관광형 [특산물] 축제로 광안리 어방 축제 [수영구], 기장 봉장어 축제 [기장군], 대저 토마토 축제 [강서구], 동래 읍성 역사 축제 [동래구], 명지 전어 축제 [강서구], 부산 고등어 축제 [서구], 부산 자갈치 축제 [중구],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 축제 [중구], 부산항 빛 축제 [중구·서구·영도구], 영도 다리 축제 [영도구], 부산 차이나타운 특구 문화 축제 [동구], 철마 한우 불고기 축제 [기장군], 해운대 오래 축제 [해운대구], 금정산성 막걸리 축제 [금정구], 가덕 송어들이 축제 [강서구], 기장 열치 축제 [기장군], 기장 미역 다시마 축제 [기장군], 북극 곰 수영 대회 [해운대구], 좌천동 가구 거리 축제 [동구], 송정 해변 축제 [해운대구], 송도 바다 축제 [서구]가 있다.

넷째 전통 문화 축제로 낙동 민속 예술제 [북구], 해운대 달맞이 온천 축제 [해운대구], 우리 문화 체험 축제 마당 [부산진구], 구포 장터 3·1 만세 운동 축제 [북구], 동래 3·1 독립 만세 재현 행사 [동래구], 부산 국제 연날리기 대회 [사상구], 사상 전통 달집 놀이 [사상구], 송도 달집 축제 [서구], 송정 미역 축제 [해운대구], 수영 전통 민속 예술 축제 [수영구], 이기대정월 대보름 달맞이 축제 [남구], 정월 대보름 달집태우기 [북구], 정월 대보름 등산등 달맞이 축제 [영도구], 정월 대보름 수영 달집 놀이 [수영구]가 있다.

다섯째 부산광역시 단위 축제 [문화 관광형]로 부산 바다 축제,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부산 불꽃 축제, 부산항 축제, UN 평화 대추전, 해맞이 부산 축제, 부산 국제 매직 페스티벌, 부산 국제 힙합 페스티벌, 조선 통신사 한일 문화 교류 축제, IT 엑스포 부산, 토요 상설 무대, 프레타 포르테 부산, 부산 국제 광고제, 부산 국제 모터쇼가 있다.

축제는 부산이라는 도시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무한한 유형·무형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며 도시의 밝은 미래를 전망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바람직한 부산의 축제는 시민 참여를 통한 문화 의식 고양, 지역의 독특하고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를 축제의 테마로 활용함으로써 부산을 창의적이고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 주요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부산의 지역 축제가 가진 역동성과 창의성을 잘 살려 부산의 자연 환경, 관광 인프라와 접목하여 골목 없는 산업인 문화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btjbusan@hanmail.net



Busan Grand Sale 2015

쇼핑축제

'부산관광그랜드세일'

다음달 10일까지

음식·숙박·쇼핑·공연 82개 업체,
백화점·면세점·호텔·전통시장 등
2천988개 업소 참여



부산관광그랜드세일이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부산 최대의 쇼핑축제인 '부산관광그랜드세일'이 30일간 펼쳐진다. 이 기간 시민과 부산을 찾은 국내외 관광객은 쇼핑을 비롯해

올 겨울 해운대 백사장에 스케이트장 조성

겨울관광객 유치에 효자노릇 할 것으로 기대

부산 해운대구청은 해운대해수욕장에 해변 스케이트 시설을 오는 1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해운대해수욕장의 백사장 폭이 40m에서 90m로 넓어

숙박·식음료·크루즈·시티투어·각종 문화공연 등을 최대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협회, 부산관광공사가 함께 마련한 올 부산그랜드세일에는 백화점·면세점·호텔·전통시장·음식점·여행사 등 지역 82개 업체, 2천988개 업소가 참여해 쇼핑·숙박·식음료·공연 등을 5%에서 최대 60%까지 할인한다. 할인쿠폰북은 부산관광그랜드세일 홈페이지(busangrandsale.or.kr)에서 출력 가능하며 김해공항과 여객터미널에 자리한 관광안내소와 주요 호텔, 여행사 등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다.

쇼핑 분야는 신세계와 롯데 백화점·면세점, 이마트 등 대형쇼핑몰이 대거 참여한다. 할인율은 5~50%대. 지역특화 쇼핑몰인 골드테마거리는 순금을 제외한 각종 귀금속류 세일에 나서고 부산인삼시장에서는 10~20%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관광 분야는 크루즈와 시티투어버스, 요트를 할인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팬스타크루즈 20%, 티파니21은 15%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다이아몬드베이 요트체험은 20% 할인해 준다. 부산시티투어버스(태종대라인 제외)도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각종 공연과 체험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국악원이 주최하는 모든 공연을 20% 할인한다. 영화의전당은 부산국제영화제 기간(10월1~10일)을 제외하고 기획공연을 15%, 전시회와 식음료는 10% 할인한다. 해운대 아쿠아리움과 부산타워는 각각 20%와 1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급호텔도 객실료를 대폭할인해 준다. 해운대그랜드호텔을 비롯해 센텀호텔, 파라다이스호텔 등은 10~30%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호텔농심은 객실료를 56.6% 할인하고 투숙객에게는 온천 2인 무료이용권을 증정한다.

이효영 기자

지면서 가로 30m 세로 61m의 국제규격으로 조성된다.

12월부터 3개월간 운영되는 스케이트장은 겨울관광객 유체에 효자노릇을 할 것으로 해운대구청은 기대한다.

부산 방문 외국인 관광객 전년에 비해 8.7% 감소

환전 1억7천100만 달러, 전년도 동기 2억1천만 달러에 비해 18.5% 감소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부산지역 환전 영업자의 환전실적(미국 달러화 기준 외화 매입 실적)은 1억7천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2억1천만 달러에 비해 18.5%, 3천900만 달러가 줄어들었다.

이는 메르스 사태와 엔화 대비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부산지역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면서 직접적인 환전도 함께 감소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적별로는 일본인 관광객수가 지난해 상반기 22만8천400명에서 올 상반기에는 18만3천명으로 19.9% 감소했다.

환전사업자별로는 호텔업(6천800만 달러)의 경우 환전영업 자수가 4개 증가하면서 환전 실적이 전년 동기(2천400만 달러)보다 증가했다. 하지만, 카지노(-2천만 달러, -13.9%), 개인(-2천200만 달러, -37.1%) 등은 심각하게 감소했다. 카지

노와 개인사업자의 환전 비중은 각각 1억2천600만 달러(73.6%)와 3천700만 달러(21.4%)로 전체 환전액의 대부분(95.0%)을 차지하고 있다.

통화별로는 엔화와 미 달러화가 전년 동기비 비해 각각 2천900만 달러(19.4%), 1천700만 달러(32.9%) 줄었다. 전체 환전액에서 엔화(70.1%) 및 미국 달러화(20.5%)가 90.6%다. 엔화의 비중이 높은 것은 환전영업이 활발한 카지노 고객 대부분이 일본인인데 주로 기인한다. 위안화 등 기타 통화(9.4%) 환전액은 전년 동기(4.3%)보다 5.1% 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카지노, 관광숙박시설 등이 많은 해운대구, 부산진구, 중구, 동구 등 4개 지역이 전체 환전실적의 대부분(99.9%)을 차지했다.

김대현 기자

해외 유명 미디어 부산 특집 촬영러쉬

해운대 해수욕장, 광안대교, 영화의 전당, 마린시티 등 전 세계에 소개 돼

올 여름 해외 유명 미디어(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방송)들이 부산의 관광·문화·먹거리·즐거거리 등 부산의 매력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해 광안대교와 마린시티, 영화의전당 같은 관광명소에서부터 먹거리와 즐거거리 등 부산만의 특별한 매력들이 해외 미디어 매체를 타고 전 세계에 소개되고 있다.

중국 제1위방송사인 후난(湖南)위성 TV의 간판 오락프로그램인 '쾌이러따번잉'(快樂大本营·쾌락대본영) 제작팀은 지난 1~3일 해운대해수욕장, 광안대교, 마린시티, 영화의전당 등 부산 유명관광지를 중심으로 '부산특집편'을 촬영했다.

쾌이러따번잉은 중국 내 최고 인기 예능프로그램이다. 제작팀은 관광·레저·쇼핑·패션·음식 등 다양한 문화와 매력으로 넘쳐나는 부산 전역을 누비며 속속들이 촬영했다. 90분 분량의 부산특집편은 중국 전역에 방영될 예정이 다. 후난위성 TV는 중국에서 7억명 이상의 시청자를 확보

하고 있으며 드라마·연예방송 및 광고수입 1위의 미디어다. 또 다른 미디어인 중국 충칭 TV도 7박8일 간의 일정으로 부산을 찾아 '부산특집편'을 제작했다.

독일 제2공영방송인 ZDF TV도 '세계의 아름다운 3대 해변' 테마촬영을 위해 부산을 다녀갔다. ZDF TV는 해운대해수욕장과 해운대시장, 요트, 동백섬, 달맞이언덕 등을 촬영하고 볼거리와 즐거거리로 가득한 부산의 여름해변 문화를 카메라에 담았다. 특히 해수욕장에서의 파라솔 대여와 해변에서 음식 시켜먹기, 활기찬 젊은이들 등 특이하고 역동적인 모습에 포커스를 맞춰 ZDF TV를 통해 독일 전역에 방송했다.

말레이시아도 Astro TV 등 무슬림 전문채널이 부산대표 관광지를 찾아 3일간 촬영했다. '부산특집편'은 프로그램 주인공이 부산에서 체험한 8가지 주제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부산매력을 소개했다.

제7회 국제의료관광컨벤션 성료



사흘 동안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7회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이 13개국 5만여 관람객이 찾아 관람한 가운데 끝났다.

지난달 열린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에는 13개 국가에서 모두 5만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들은 전시장을 꾸민 부산지역 의료기관들의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과 서비스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꼈다.

부산권의료산업협회와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이 부산지역 의료관광 홍보와 마케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써 부산 의료관광 시스템을 유럽시장에까지 널리 알릴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 부산권의료산업협회와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은 부산 의료관광 유럽시장 홍보, 부산 의료관광 시장 확장을 위한 공식항공사 지정 등의 방안을 서로 논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에선 다양한 학술적 논의도 이뤄졌다.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모두 4차례에 걸쳐 마련됐다.

첫날 열린 '부산 의료산업 비전 세미나'에서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한동우 의료수출지원실장은 "해외 환자유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지만 새로운 유치 모델 개발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면서 "중국, 러시아, 미국 등 환자 유치 상위 국가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 타깃 국가를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의료산업계 바이어들도 대거 전시장에 찾았다.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등에서 온 바이어와 의료 관계자 130여 명이 부산 의료관광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과 컨벤션 참가 기관 관계자들은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비즈니스 상담회와 네트워킹 파티를 통해 서로 외연을 확장했다. 해외 바이어들은 '의료기관 팸투어'를 통해 부산의 선진화된 '명품 의료' 현장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중국의료관광객만 2000명 태운 크루즈선 부산 유치

市-중국 모집업체 손잡고 추진, 11월 8~13일 까지 5박 6일 일정

부산시가 지역병원 등과 손잡고 크루즈선을 타고 온 중국인 의료관광객 2000명을 동시에 유치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엔 운항하는 테마크루즈선은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7만6000이급으로, 오는 11월 8일부터 13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운항한다. 11월 8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9일 오전 8시께 부산에 도착, 10일 밤 10시 다시 출항할 계획이다. 의료관광객 2000명은 이를 동안 부산에 머물며 의료 상담과 간단한 수술·시술 등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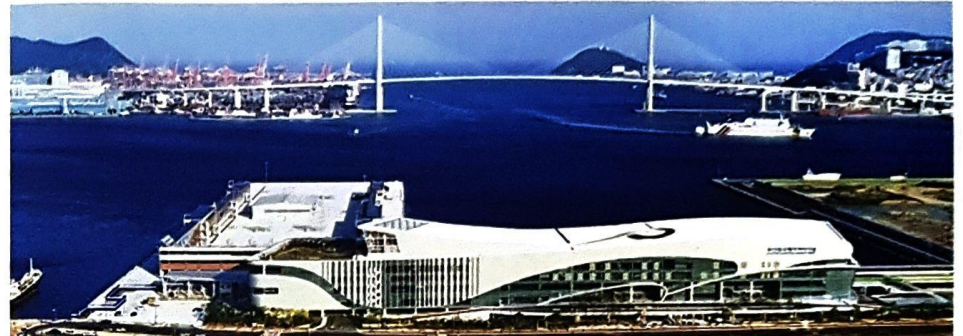
이를 위해 올해 초 부산시 성형외과의사회, 한국크루즈의료관광협회, 의료관광 에이전시 2곳이 한중 의료·미

용테마크루즈 추진협회를 구성했으며 부산시와 협의회, 중국 측 사업 파트너가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국 측 파트너는 400여 개의 지점을 거느린 미용·스파그룹 등 3개사가 공동투자한 특수목적법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관광객 모집은 중국 측이 담당하고, 협의회와 시는 참여 병원 50개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36개 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성형외과가 26곳으로 가장 많고 피부과 5곳, 치과 2곳, 안과 2곳, 건강검진 1곳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 부산항 새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크루즈선·여객선 동시접안, 부산관광 활성화 큰 몫



부산항 새 국제여객터미널이 26일 개장식을 갖고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북항재개발 지구 내 새로운 터미널로 이전, 본격적으로 새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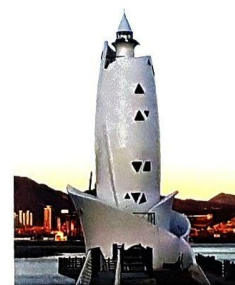
부산항 북항의 기존 3·4부두 일원에 들어선 새 국제여객터미널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사업비 2천343억원을 들여 지난 1월 준공했다. 그동안 이용객 안전·편의시설 보강공사와 함께 시범운영을 해왔다. 국제여객터미널동, 게이트, 보세화물 창고, 근로자휴게소, 면세품인도장 등을 갖췄다. 이 시설을 모두 합친 건축 연 면적은 9만3천932㎡에 달한다. 축구장 13개 크기, 아시아 최대 터미널이다. 기존 국제여객터미널 노후화와 수용인원 부족 문제를 해결해 부산관광산업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 새 국제여객터미널의 가장 큰 목적이다.

2만급 5선석, 5000급 8선석, 크루즈선박 10만급 1선석 등 여객선과 크루즈 14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여객과 크루즈여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복합터미널로 2020년 기준, 연간 278만명이 이용할 수 있다.

핵심시설인 국제여객터미널동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고 래의 힘찬 유행과 파도를 디자인한 외관으로 '해양수도 부산'의 역동성을 잘 보여준다.

국제여객터미널동 5층에는 각종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를 열 수 있는 컨퍼런스홀, 다목적 이벤트를, 회의실 등이 있어 터미널 기능뿐 아니라 마이스(MICE) 시설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상 1층에는 주차장과 수하물탁송장이, 2층은 입국장, 3층은 출국장이다. 출입국장에서 부두로 이어지는 통로일부에는 무빙워크를 설치했다. 크루즈나 여객선을 타고 입·출국하는 승객을 위한 각종 입국 지원시설과 식당, 편의시설 등을 갖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3층에는 대형 면세점이 자리한다.

터미널 개장에 맞춰 이용객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 5-1, 1004번 등 2개 노선이 터미널까지 연장 운행되거나 조정됐다. 김우용 수석기자



부산항 북항 재개발구역 '동방의 등불' 조형등대 설치

국제여객터미널 야외공연장 인근에 조형등대가 설치되어 있어 이곳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도 갖추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기자회견에서 강수연 집행위원장, 서병수 조직위원장,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올해 행사와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5 BIFF, 75개국 304편 은막의 향연 펼친다

10월 1일 부터 열흘간 영화의전당, 남포동, 해운대 일대 상영관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작은 인도의 독립영화 감독 모제즈 싱 감독의 '주바안', 폐막작은 중국 래리 양 감독의 '산이 울다'가 선정됐다.

올 BIFF는 10월 1일 오후 6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일 까지 열흘 동안 영화의전당을 비롯한 해운대와 남포동 등 6개 극장, 35개 스크린에서 열린다. 초청작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BIFF에서 처음 상영하는 월드프리미어 94편(장편 70편, 단편 24편), 자국 이외에 처음 상영하는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27편(장편 24편, 단편 3편)이 한자리에 모인다.

부산국제영화제 20주년을 기념하는 '아시아영화 100'과 '2015-2016 한국-프랑스 상호교류의 해'를 기념해 프랑스 영화를 재조명하는 '내가 사랑한 프랑스 영화' 특별전 등을 마련한다. 프랑스영화 특별전에는 모두 10편의 작품을 소개한다. 이 중 9편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영화감독·배우·영화평론가·영화제 관계자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한국영화 회고전 주제는 '1960년대 숨은 걸작'이다. 한국영화 최초의 황금기인 1960년대 숨은 걸작 8편이 관객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그동안 회고전을 통해 김기영, 김수용, 한형모, 유현목, 신상옥, 이만희, 김기덕, 정진우, 임권택 감독 등 매년 한 감독의 대표작을 소개해 왔으나 올해는 20회를 맞아, 한국영화의 황금기라 할 수 있는 1960년

대 숨은 걸작 8편을 소개하기로 했다.

영화제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시아 거장 감독의 작품 6편을 소개하는 '갈라 프레젠테이션', 도전적인 아시아 젊은 감독의 작품 52편을 선보이는 '아시아 영화의 창'이 각각 마련됐다.

경쟁부문인 뉴커런츠 부문에는 이승원 감독의 데뷔작 '소통과 거짓말'을 비롯해 10개국에서 8편의 작품이 선보인다. 한국영화의 최신작을 엿보는 '한국영화의 오늘'과 1960년대 걸작을 다시 볼 수 있는 '한국영화 회고전'도 주목된다.

비아시아권 중견 작가의 영화 50편을 소개하는 '월드시네마', 신인 감독들의 작품 30편을 선보이는 '플레이스포워드' 역시 올해도 영화 마니아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인도 모제즈 싱 감독의 '주바안'

영화제 조직위는 아시아 최고의 영화 100편 가운데 10편을 소개하는 '아시아영화 100', 내년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한 '내가 사랑한 프랑스 영화' 특별전도 마련했다.

외국 영화인도 변함없이 부산을 찾아 영화제를 빛낸다. 허우사오시엔, 지아장커, 아피차퐁 위라세타쿰 등 부산영

화제 단골손님은 물론 홍콩의 탕웨이, 프랑스이 셀린 샬레 등 유명 배우도 대거 영화제를 방문할 예정이다.

유명 영화인의 손도장을 남기는 '핸드프린팅'을 비롯해 마스터클래스, 오픈토크, 아주담당, 야외무대 인사, 시네마 투게터 등 관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부대행사로 마련됐다.

영화의전당 영화관객 100만 넘어섰다

영화의전당이 상영관과 영화 관련 기획 프로그램에 참가한 영화 관객 수치를 집계한 결과 2012년 25만 8708명, 2013년 30만6459명, 2014년 34만2794명, 올해 상반기(6월 기준) 11만8672명으로 개관 3년6개월만에 관객 102만 6633명을 달성하고 '관객 1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전체 영화 관객 중 상영관 3곳(시네마테크, 소극장, 중극장)의 관객은 53만334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특히 예술영화를 관람한 관객은 2012년 4만1665명, 2013년 5만6443명, 2014년 7만6523명, 올해 상반기 3만5107명으로 매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영화 객석 점유율도 매년 15~20%대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집계한 전국 예술영화전용관 객석점유율(2013년 기준 6.7%)보다 높았다. 이는 영화의전당이 개관 이후 빠르게 예술영화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영화의전당이 예술영화 상영관 2개(시네마테크, 소극장)로도 빠른 시간에 관객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비교적 많

은 예술영화를 소개한 데다, 상영 기간도 일반 극장보다 길게 잡았기 때문이다. 영화의전당은 한 작품당 최소 3주간 영화를 상영해 교체 순환이 빠른 멀티플렉스의 차별을 꾀했다. 덕분에 시기를 놓친 관객이 영화의전당을 찾는 사례가 늘었고, 자연스럽게 예술영화관으로 입소문을 타게 됐다.

또 남미영화제, 아랍영화제 등 다양한 국가의 문화원이거나 대사관과 공동 주최하는 '공동주최 영화제'를 찾은 관객도 2012년 5106명, 2013년 7655명, 2014년 1만7680명, 올해 상반기 1만2666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영화의전당이 색다른 영화를 상영하는 예술영화 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한편 영화의전당 영화, 공연, 전시 등 전체 이용객 수도 2012년 45만6000명, 2013년 54만5000명, 2014년 64만4000명, 올해 상반기 23만249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j@busan@nhanmail.net



유네스코 감천문화마을,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젝트 공식 인증

감천문화마을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주관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 인증을 받았다. 2011년부터 시행한 이 인증은 정부나 민간단체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1년 이상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현장심사 등을 거쳐 선발한다.

지금까지 통영 동피랑벽화마을, 연대동 에코아일랜드 등이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19곳이 신청했고 최종 6곳이 선발됐다.

감천문화마을은 '지역개발 및 거버넌스'를 주제로 주민과 자치단체가 협력해 마을을 살린 데 높은 점수를 얻어 19곳중 최고점수를 받았다. 마을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벽화를 그리거나 예술품을 전시하는 등 문화를 접목시킨 점도 도시재생의 모범사례로 꼽혔다.

감천문화마을은 6.25전쟁 때 피란민들이 천마산 비탈을 따

라 판자집을 지어 생긴 마을이다. 감천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지역 예술인들과 마을주민들이 합심해 오래된 환경을 보수하고 다양한 전시와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아름다운 감천항 전경과 옛 모습의 흔적들,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이 어우러져 지금은 연간 30여만 명이 방문하는 부산의 관광명소가 됐다.

이번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인증으로 감천문화마을은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민관 거버넌스 모범사례로 국제사회에 더욱 알려지게 됐다.

인증을 수여한 유네스코는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 1946년 설립된 유엔전문기구이다.

김대현 기자



감천문화마을에 스토리텔링사업 추진

감천문화마을에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모아 책자를 만든다. 사하구는 오는 11월까지 감천문화마을의 역사와 문화, 인물, 명소, 설화 등 이야기 자원을 발굴하는 '감천문화마을 스토리텔링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구청 관계자와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모여 스토리텔링 개발 추진 방향과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 또 이야기 발굴 전문업체와도 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구청이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과 향토사학전문가, 문헌자료 등을 통해 각종 이야기 자원

을 수집한 뒤 심층 분석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완성된 이야기는 책자로 편찬돼 부산의 각 지자체와 한 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등 주요 관광시설에 배포된다. 이와 함께 개발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관광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2차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하구 관계자는 "감천문화마을만의 독특한 이야기는 문화를 접목한 도시 재생 성공사례에 이어 새로운 명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감천문화마을 게스트하우스 이달부터 시범운영 타 관광지와의 연계관광 등 다양한 관광상품도 준비

감천문화마을에서 국내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시범운영된다. 사하구는 감천문화마을 숙박서비스 및 연계형 관광상품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달 열었다.

이번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내국인 도시민박은 마을 전체 민박을 총괄할 수 있는 중앙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에서 민박사업단을 조직하고, 사하구가 조성한 체험주택을 1층을 민박 가정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박을 운영하는 주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하고 선진 민박체험도 진행한다.

또한 숙박객을 대상으로 하는 입주자가 공방체험, 달빛 아래 골목길 투어, 다른 관광지와의 연계관광 등 다양한 관광상품도 준비한다. 이를 위해 6개월 동안 신청을 받아 체험주택과 감내어울터 4층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해 시범 운영할 계획

이다. 도시민박업에 대해 마을주민과 감천문화마을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결과 71%는 마을 내 게스트하우스 이용을 원했다. 현재 민박 운영을 희망하는 가구는 38가구로 관심을 보이는 주민도 많았다. 사하구 관계자는 "감천문화마을만의 독특한 민박시스템을 갖추어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천문화마을은 지난해에만 75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였지만 관련법에 묶여 내국인 숙박은 불가능했다. 지난해 11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내국인 대상 숙박업이 가능해졌다.

이효영 기자



감천2동
문화마을 가는

감천문화마을 대표 관광상품 '황토요오드 소금' 선정

사하구는 감천문화마을 대표 관광상품으로 구가 개발한 '황토 요오드 소금'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4월 행정자치부의 '2015 마을공방 육성사업' 가운데 '관광상품 생산·판매사업'에 뽑힌 데 따른 것이다. '마을공방 육성사업'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단위 사업으로 올해는 사하구를 포함한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구는 국·시·구비 2억5000만 원을 들여 감내골 행복발전소 근처에 지상 1층 총면적 122㎡ 규모로 황토요오드 소금을 생산할 마을공방을 만들 예정이다. 지역주민 10~15명을 채용해 이르면 오는 11월 황토요오드 소금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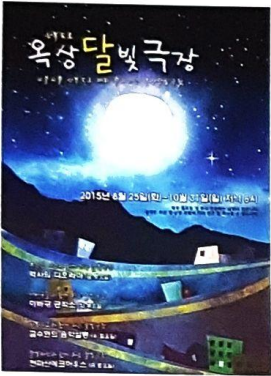
황토 요오드 소금은 사하구가 지난 3월 1600만 원을 들인

'감천문화마을 관광상품 개발 용역'을 통해 개발됐다. 감천문화마을만의 특색있는 상품을 개발해 방문객들에게 마을을 추억할 수 있게 하고, 주민들이 함께 상품을 제작하는 협업 공방을 만들어 고정적인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하려는 목적이었었다. 구에 따르면 선정 배경은 '문화마을에서 보이는 감천항과 부산이 항구도시'라는 이유다. 또한 구는 부산이 고리원전 주변에 있어 방사능 제거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요오드를 소금에 첨가했다고 밝혔다. 만약 안팔려 재고가 쌓이더라도 소금은 상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황토 요오드 소금은 특허까지 낼 정도로 독창적인 상품이다. 이를 계기로 감천문화마을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키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복도로 야외극장 '옥상 달빛극장' 생겼다

10월 말까지 화~일 밤 8시 무료 영화상영, 관광객에게 추억·낭만 선사



부산 산복도로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독특한 운치를 즐길 수 있는 '옥상 달빛극장'이 생겼다. (사진은 산복도로 옥상 달빛극장 운영을 알리는 포스터)

부산 산복도로 달빛 아래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운치를 즐길 수 있는 야외극장이 생겼다. 이름하여 '산복도로 옥상 달빛극장'이다. (사)부산국제단편영화제조직위는 중구 '금수현의 음악살롱' '역사의 디오라마'와 동구 '이바구공작소', 서구 '천마산에코하우스' 등 산복도로에 들어선 역사문화시설 4곳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옥상 달빛극장'을 운영한다.

산복도로 옥상 달빛극장은 지난달 25일 문을 열어 오는 10월31일까지 4곳에서 돌아가며 월요일과 비가 오는 날, 추석연휴를 제외하고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화·금요일에는 금수현의 음악살롱에서 '산복도로와 함께 하는 달빛극장'을, 수요일에는 이바구공작소에서 '이바구길과 함께 하는 달빛극장'을, 목·토요일에는 역사의 디오라마에서 '부산항 야경과 함께 하는 달빛극장'을 각각 운영하는 것. 금요일에는 천마산에코하우스에서 '달빛라빛과 함께하는 달빛극장'도 운영한다.

이들 극장에서는 단편독립영화제 수상작을 주로 상영하고 일부 상업영화도 선보일 예정이다. 극장별로 주 2회 상영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상영작과 관람 문의는 (사)부산국제단편영화제조직위(714-1224)로 하면 된다. 이효영 기자

산복도로 지역재생사업, 부산진구로 확대 추진

지역문화 재생과 관광명소화 효과 창출

부산 부산진구 개금2동 개금시영아파트 옆 산복도로구간에 산책과 휴식을 위한 보행데크 설치되고 미관개선 작업이 내년에 이뤄진다. 지금까지 서구와 중구, 동구 등 원도심 산복도로에 집중됐던 산복도로 지역재생 사업이 내년에는 부산진구로 확대돼 추진된다.

부산시와 부산진구는 부산진구의 산복도로 지역이 가아 1·2동과 개금 1·2동 일대를 대상으로 '산복도로르네상스' 6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표적인 사업은 '벚꽃길 프리마켓' 덕 사업'과 '가야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을 비롯해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산복도로에 소화전을 설치하는 '골목길 소화전 설치 사업'(가야동), 공동작업장과 사랑방, 작은도서관 등으로 활용하는 '다락방 나눔센터 조성사업'(개금1동), 동의대 진입로 옆 낙후된 도심하천 교량을 보수하고, 다리와 골목길에 벽화와 아름다운 경관디자인을 입히는 '도심하천 경관개선 사업'

(가야동)등 11개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부산의 산복도로는 중구, 동구에만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사하구~서구~중구~동구~부산진구까지 산복도로가 이어져 있다"며 "부산진구의 산복도로가 중·동구 지역에 비해 야경이 떨어지고 역사적 자산도 부족하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차별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말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사업을 시작해 2017년까지 11개 사업을 마무리한다.

2011년부터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추진 중인 시는 지난 해까지 사하구~서구~중구~동구의 산복도로에 486억 원을 투입, 139개의 사업을 끝내고 지역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과 주민협업 공간 마련, 지역문화 재생과 관광명소화 등의 효과를 창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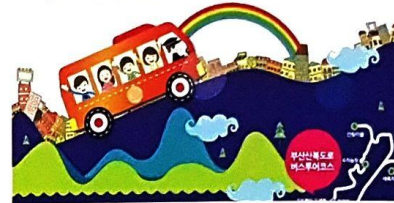
산복도로 순환 투어버스, 운행 횟수·코스 더 늘렸다

부산역 출발 5회→18회 확대 운행, 코스·체험 프로그램 다양화

Sanbokdoro Bus Tour
부산의 지붕을 달린다!

산복도로 버스투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부산의 또 다른 모습, 산복도로의 특별한 경관과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만끽하려면 산복도로 버스투어에 몸을 맡기세요!



의 설명을 들으며 산복도로 명소를 둘러보고 각종 체험을 할 수 있는 '테마형 코스'는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운행한다. 야간 코스 이용객들은 달빛 아래 산복도로 마을에서 열리는 각종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테마형 주간코스'는 부산역→매축자→안창마을→유치환의 우체통→이바구공작소→역사디오라마

부산 특유의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산복도로를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는 투어버스가 지난 1일부터 운행 횟수와 코스를 대폭 늘렸다.

부산 산복도로는 우리 근현대사의 애환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으로 독특한 마을풍경과 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산복도로 투어버스는 관광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산복도로의 독특한 경관을 즐기고 다양한 장소에서 역사의 애환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9월부터 운행하고 있다.

부산역 광장에서 출발하는 산복도로 투어버스는 25인승 버스 1대로 관광객이 몰리는 토요일



에만 운행해 왔지만, 9월 1일부터 버스를 3대로 늘려 주말 운행도 늘리는 것은 물론 평일

(목요일)에도 운행한다. 토요일 3차례, 일요일 2차례 운행하던 것을 목요일 8차례, 금요일 9차례, 토요일 11차례, 일요일 10차례 운행해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복도로 투어버스 운행 코스 역시 다양해졌다. 마을해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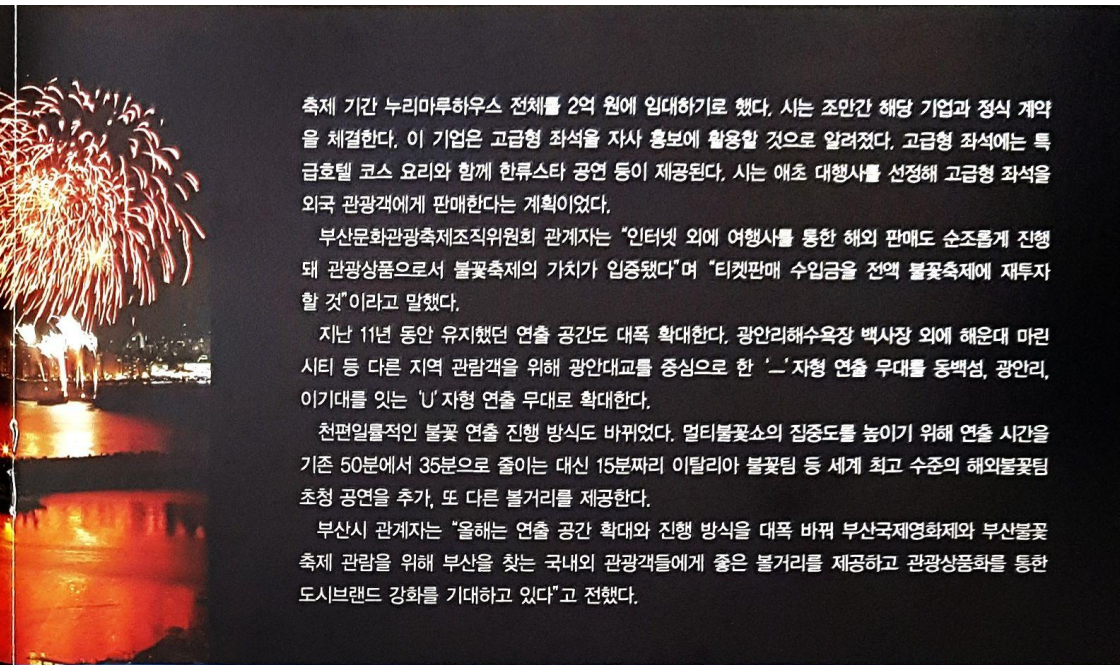
마→산리협동조합→동아대 석당박물관→영도대교→부산역을 운행하며 토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각각 출발한다. '테마형 야간코스'는 부산역→까꼬막&유치환의 우체통→이바구공작소→역사디오라마→금수현의 음악살롱→한마음행복센터→부산역을 운행하며 금요일 오후 6시 출발한다.

일종의 패키지여행처럼 정해진 시간 내에 타고 왔던 버스에 다시 탑승해야 하는 '테마형 코스'와 달리, 관광객들이 마을에 드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다양한 체험을 즐긴 후 다음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순환형 코스'도 운행한다.

'순환형 코스'는 부산역→까꼬막→금수현의 음악살롱→덕밭골 마을→동아대 석당박물관→감천문화마을→비석마을&한마음행복센터→보수동책방골목→부산근대역사관→부산역을 운행한다. 목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간 정각에 출발하고, 오후 4시20분 막차가 출발한다.

산복도로 투어버스 운행 코스가 늘면서 체험프로그램도 다양해진다. 기존 천연염색과 전통예절 체험(안창마을)뿐만 아니라 비즈공예 체험(까꼬막 카페), 떡 만들기 체험(산리협동조합), 바리스타 체험(덕밭골북카페) 같은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야간코스의 경우 클래식 음악회(금수현의 음악살롱)와 버스킹공연(까꼬막) 등을 감상할 수 있는 낭만을 선사한다.

김무웅 수석기자



10월 23~24일 광안리 앞바다에는 지상최대, 최고의 제11회 부산세계 불꽃축제 향연 펼쳐 중국·일본 관광객 유치위해 화려한 불거리와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부산불꽃축제가 올해 확 달라진 모습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부산시는 오는 10월 23~24일 광안리 앞바다에서 열리는 '제11회 부산불꽃축제'에 중국·일본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예년에 비해 더 화려한 불거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올해를 '불꽃축제 국제화와 관광상품화 원년'으로 정하고 체류형 관광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일부 관람석에 대한 유료화를 첫 시도한다. 관람석 유료화는 일반형의 경우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설치되는 관람석 8만2000㎡ 가운데 최고 명당으로 꼽히는 해수욕장 입구 백사장 5860㎡(길이 143m, 폭 41m)에 1만명을 수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일부 유료화하는 부산불꽃축제 좌석 1차 판매분이 2시간여 만에 '완판'됐다. 좌석당 100만 원으로 예고 돼 논란에 휩싸였던 '고급형'은 부산의 한 기업이 통째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인터넷 판매를 시작한 제11회 불꽃축제 좌석 1000석이 매진됐다고 밝혔다. 이날 시가 내놓은 좌석은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 깔리는 '일반형' R석 200석과 S석 800석이다. 1000석 티켓 가운데 부산에서 410장,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350장, 이 밖에 지역에서 240장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일반형 전체 1만 석 가운데 6000석은 현재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나머지 4000석 중 1000석은 장애인과 저소득 가구 등 사회적 약자에게 나눠주기로 했다. 또 이날 팔고 남은 2000석은 이달 중순과 다음 달 다시 인터넷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특히 해운대구 동백섬 APEC누리마루하우스에 마련되는 고급형 좌석 700여 석은 이미 판매가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최근 부산의 한 증권기업과 구두 계약을 맺고 불꽃

축제 기간 누리마루하우스 전체를 2억 원에 임대하기로 했다. 시는 조만간 해당 기업과 정식 계약을 체결한다. 이 기업은 고급형 좌석을 자사 홍보에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급형 좌석에는 특급호텔 코스 요리와 함께 한류스타 공연 등이 제공된다. 시는 애초 대행사를 선정해 고급형 좌석을 외국 관광객에게 판매한다는 계획이었다.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 외에 여행사를 통한 해외 판매도 순조롭게 진행돼 관광상품으로서 불꽃축제의 가치가 입증됐다"며 "티켓판매 수입금을 전액 불꽃축제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년 동안 유지했던 연출 공간도 대폭 확대한다.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 외에 해운대 마린시티 등 다른 지역 관람객을 위해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한 'U'자형 연출 무대를 동백섬, 광안리, 이기대를 잇는 'U'자형 연출 무대로 확대한다.

편견일탈적인 불꽃 연출 진행 방식도 바뀌었다. 멀티불꽃쇼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연출 시간을 기존 50분에서 35분으로 줄이는 대신 15분짜리 이탈리아 불꽃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불꽃팀 초청 공연을 추가,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연출 공간 확대와 진행 방식을 대폭 바꿔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불꽃축제 관람을 위해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상품화를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꽃축제 명당지리는 동백섬, 이기대, 백산, 광안리 수변공원이 으뜸자리

독일의 철학자 아도르노는 말했습니다.
"불꽃놀이는 예술의 가장 완전한 형태다.
그 영상이 최고의 완성 순간에 보는 이의 눈앞에서
다시 살아져 가기 때문이다."라고

광안리가 아니더라도 불꽃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는 많다. 우선 황령산, 산허리를 따라 광안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이 워낙 많아서 매년 1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린다. 이쯤되면 이곳도 숨은 명당이라기 보다는 제2의 관람명소라고 하는 게 적당할 듯 하다. 해운대 동백섬과 수영만 매립지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관람명소, 특히 동백섬 누리마루 인근에서 바라 본 불꽃의 모습은 많은 사진작가들에게 사랑받는 부산불꽃축제의 사진 구도이기도 하다. 이기대는 200면이 넘는 넓은 주차공간이 확보돼 있고 주변 절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광안리 해수욕장 좌우로 위치한 민락수변공원과 남천삼익비치 앞 방파제도 인기다. 특히 민락수변공원은 스탠드까지 마련돼 있어 앉아서 관람하기 편하다. 때로는 정면보다 측면이 입체감이 살아난다. 그에 비하면 민락동 부산MBC 건물 뒤 백산은 의외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명당. 높은 건물들이 비교적 적어 불꽃들을 마음껏 관람할 수 있다.

bj@busan@hanmail.net

2015 부산~후쿠오카 공동프로모션 펼쳐

부산시와 부산시관광협회는 지난달 말부터 일본 언론·관광 관계자 초청 팸투어와 후쿠오카 시내버스 래핑광고, 공동 관광 설명회 등을 추진하는 '2015 부산~후쿠오카 아시아게이트웨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부산~후쿠오카 아시아게이트웨이 사업은 두 도시를 하나의 광역관광권으로 묶어 관광객이 한국과 일본의 문화를 동시에 맛볼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지난 2008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8월 25~27일 3일간 후쿠오카를 비롯해 나가사키와 가고시마 등 일본 규슈 지역의 언론 및 관광 관계자

를 초청해 해운대와 남포동, 감천문화마을 등 부산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본 뒤 황량산 전망 커피를 방문했다. 또 부산의 대표 먹거리 중 하나인 어묵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어묵 체험 행사 팸투어도 진행했다.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후쿠오카 시의 변화가인 텐진과 하카타 지역 등을 운행하는 버스에 'Let's go to BUSAN(부산가자)'을 콘셉트로 해운대와 범어사 등 관광지와 부산불꽃축제를 홍보하는 래핑광고를 부착했다.

시는 오는 10월에는 대만 언론 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산 초청 팸투어를 할 계획이다.

부산역 광장, 문화·예술·관광 등 창조경제 거점 공간 조성

국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개장 후 110년 만에 새로운 관광명소로 될 것



부산역 광장을 볼거리·즐길거리·놀거리·살거리·먹거리를 제공하는 관광 명소로 거듭나게 할 '창조경제거점공간'으로 조성된다.

부산시는 '부산역 광장 일원 창조경제거점공간 조성 국제아이디어 공모전'에 55개국, 408팀이 참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0월 1일까지 작품을 받아 8일 우수작 3편을 선정한다. 이어 1차 우수작을 대상으로 다시 2차 기본설계 공모를 시행해 오는 12월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당선작을 바탕으로 곧장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 내년 6월 말 공사를 발주할 방침이다.

부산역 창조경제 거점공간 조성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한 국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총 사업비 500억원

(국비 250억 원, 시비 25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시는 이번 국제공모에서 청년·전문인·지식인의 활동을 집적·융합함으로써 IT·창업·지식 등 창조경제 산업의 기반이 되는 공간계획을 담도록 했다.

이 사업은 애초 택시승차장 상부에 덕 구조물을 건립하는 실시설계를 공모하기로 했으나 폭넓은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 1차 공모에서는 아이디어만 받고 3개 작품을 선정한 후 2차 공모에서 실시설계를 맡길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는 창조경제거점공간을 현재 수립 중인 '북항 일원 그랜드 마스터 플랜'의 마중물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북항재개발지역~부산역~원도심을 공간·기능적으로 통합해 고용을 창출하고 보행자 중심의 공간을 구축한다.

시 관계자는 "창조경제거점공간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북항과 부산역, 동구 지역의 원도심이 이어져 북항 지역과 함께 원도심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산역진·출입 계단을 역대로 이전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해 부산역 광장은 개장 후 110년 만에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웅 수석기자

부산항 크루즈 모항 변신위해 크루즈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관광객, 시내관광·교통·숙박시설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항이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모항(母港)이란 크루즈선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잠시 들르는 기항(寄港)과 달리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 승객과 승무원이 타고 내리며 급유나 식자재 같은 선용품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 크루즈선이 2013년 109회, 지난해 110회 부산항에 기항했지만, 모항이 아니어서 이들 선박에 대한 부산지역 선용품 공급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실적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2월 제정한 '크루즈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는 부산 여건에 맞는 크루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침을 마련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이 조례는 부산항을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동북아로 시장을 확대하는 외국 크루즈 선사와 내년엔 출범 예정인 국적 선사도 부산을 모항으로 선택할 경

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이 모항이 되면 부산에서 승선하는 관광객은 부산 시내 관광, 교통·숙박 시설 이용으로 기항지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는 또 크루즈와 관련된 선용품, 선박관리, 선박수리 등 배후지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조항까지 담고 있어 크루즈산업뿐 아니라 연관산업까지 동반성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해양수산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제대로 지원하면 크루즈산업은 선용품, 선박관리 등 해운·조선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10월 의회 심의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무웅 수석기자

감만동 편의시설확충, 동삼동 크루즈터미널 확장공사 단축



부산해수청은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컨텀호를 비롯해 초대형 크루즈선이 현재 부산지역에서 유일하게 접안할 수 있는 감만부두 편의시설을 올 연말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이 계획에는 크루즈 기항 확대, 모항 육성,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한 산업역량 강화, 연관산업 동반성장 방안이 포함된다.

시는 또 중국 상하이 베이징 칭다오 일본 오사카 가나자와 등지를 돌며 해외 크루즈 마케팅을 펼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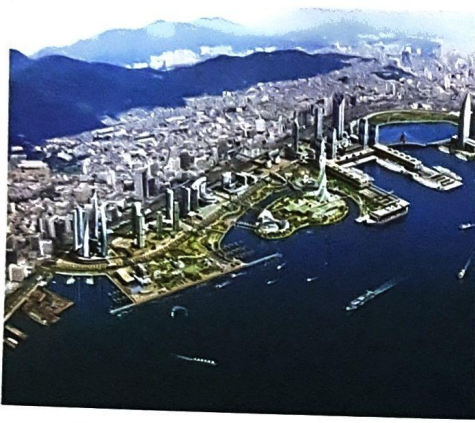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여파로 올해 28만 명으로 잠은 크루즈 관광객이 73회, 15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크루즈선 관광객은 212회 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부산해수청과 부산항만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크루즈 협의체를 중심으로 크루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감만부두 편의시설 확충과 영도구 동삼동 부산국제크루즈터미널의 접안능력을 오는 2018년까지 22만 t으로 늘리는 확장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최근 부산항 새 국제여객터미널 5층 회의장에서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세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부산검역소, 부산관광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항 크루즈산업 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북항 재개발 지역, 카지노 복합리조트 후보지에 뽐혀



부산 북항재개발지역이 정부가 추진하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후보지에 뽑혔다(그림은 북항재개발 조감도).

부산 북항재개발지역이 정부가 추진하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후보지에 뽑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계획 공모에 "응시 가능한 지역"으로 부산 북항재개발지역 등 전국 9곳을 선정했다. 부산 북항재개발지역과 함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진해 운동지구,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등 인천 6곳, 전남 여수 경도가 포함됐다.

정부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은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 전국 2곳 안팎의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부터 '콘셉트 제안공모'(RFC)를 실시, 전국 34곳의 제안서를 접수해 전문가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후보지 9곳을 선정했다. 이들은 대상으로 오는 11월 27일까지 세부적인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계획 공모'(RFP)를 실시해 12월 최종 사업 대상지와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계획은 외국인 투자 5억 달러를 포함해 총 투자 규모가 1조원 이상 돼야 하며, 국제회의시설, 테마아트렉션 등 문화·예술시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부산은 북항재개발지역 해양문화지구(4-2블록)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객실 1천개 이상의 5성급 호텔, 전시·컨벤션시설, 엔터테인먼트시설, 테마파크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는 복합리조트가 북항재개발을 완성하는 핵심시설이 될 것으로 보고, 북항재개발지역이 복합리조트 개발 대상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행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부울경 관통 철길 따라 철로별 W-라인 프로젝트 사업추진

수영역 센텀시티와 W-라인의 관광 셔틀 안내 시스템 구축, 옛 송정역 폐역을 이용한 문화관광 기능 활성화 사업, 민박촌·서핑학교 연계한 이벤트 프로그램 마련

부산시는 최근 시청에서 '철길마을에 행복을 함께 놓는 W-라인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부산 북구 구포역 주변에 구포국수체험박물관이 들어서고, 사상역에는 명품가로거리 마켓이 형성되는 등 지역별 활성화 전략을 마련했다.

부산시가 주관하고 김해시, 양산시, 울주군이 연계하는 철길마을 W-라인 프로젝트는 지역행복생활권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2016년까지 부산 6곳, 김해 3곳, 양산 1곳, 울주 1곳 등 모두 11곳의 기차역 주변에 국비 등 32억원을 투입해 철길 주변 마을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나온 지역별 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구포역 주변에 구포국수체험박물관이 들어서고 역사테마거리에서 구포시장까지의 보행환경 개선이 추진되고 사상역에는 600m 길이의 명품가로거리 마켓이 조성되며 부전역에는 역사 내에 W-라인 홍보관이 만들어진다.

동래역에는 폐역공간을 이용해 근대생활문화자료관이 조성된다. 수영역에는 센텀시티와 W-라인의 관광 셔틀 안내 시스템이 구축되며, 옛 송정역에는 폐역을 이용한 문화관광기능 활성화사업과 민박촌·서핑학교를 연계한 이벤트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진영과 진례, 함림역이 있는 김해지역에는 친환경 생태농업과 통합브랜드 개발 사업이 추진되며, 양산에는 원동역을 중심으로 기존 원리마을 상권 쇠퇴거리 활성화 전략이 마련되는 한편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경관형성사업이 이뤄진다.

또 울산 울주군 남창역에는 남창역-은양체육공원-웅기마을 보행연결로 개선과 남창역 광장 경관특화사업이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가야문명권에 속하는 지역 특성상 '토기로 하나되는 W-라인'을 표방하고 있다"면서 "김해 분청도자기·클레이아트, 울주군 웅기마을, 부산 등래 등산마을 공동체가 연계된 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그린레일웨이 착공

동해남부선 폐선부지를 공원·녹지로 조성하는 그린 레일웨이사업이 시작했다.

부산시는 그린 레일웨이 1단계 구역인 울림피코차로~부산기계공고 1.3km 공사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공사를 선정할 후 앞으로 1년간 34억 원을 투입해 이곳에 화훼원, 체력단련장, 휴게역, 산책로, 그늘시설, 자전거도로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1단계 구역 외 부산기계공고~미포 2.4km(2구역), 미포~옛 송정역 4.8km(3구역), 옛 송정역~송정천 1.3km(4구역)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용역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단계별로 착공한다. 이들 구역은 각각 해운대 사계절 꽃나루길, 미포·송정 바다풍경 숲길, 송정 숲 그늘 숲길로

꾸며진다. 그린 레일웨이 전 구간은 2017년 준공하며, 총 사업비는 316억 원이다.

철도시설공단은 시민 반발을 고려해 개발 가능한 사업을 '자연친화적인 관광진흥시설'로 제한, 개발안을 공모한다. 민간사업자는 자연환경과의 조화, 교통 개선대책 수립, 그린 레일웨이와 연계 등의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시는 철도시설공단의 개발안이 나오면 다시 라운드테이블을 열어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증할 방침이다.

부산시 철도시설 관계자는 "폐선부지 전 구간에 그린 레일웨이가 끊기지 않도록 할 것"이며 "개발도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 지나친 상업개발로 흐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구 명물 송도해수욕장 구름다리 복원 추진

부산 송도해수욕장의 옛 명물인 구름다리 길이 120m, 폭 3m를 복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미 복원한 해상 다이빙대와 포장 유선(놀잇배)을 비롯해 해상케이블카와 구름다리까지 복원되면 과거 명물로 꼽히던 관광자원이 모두 되살아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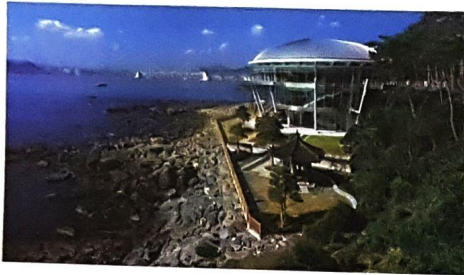
송도해수욕장 다이빙대 놀잇배 케이블카와 함께 해수욕장 4대 명물이던 송도 구름다리는 1964년 만들어졌다가 2002년 태풍에 피해를 당해 철거됐다. 현재의 송림공원과 거북섬을 이어주던 구름다리는 철거되기 전까지도 부산 시민과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송도해수욕장을 찾은 시민은 송림공원 정상에서 구름다리를 건너 거북섬 해상산책로(구름산책로)를 둘러본 뒤 해변 쪽으로 진입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천마(天馬)나 용 등 지역의 지명과 전설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가미할 계획"이라며 "안전성을 보장하면서도 스릴을 느낄 수 있는 '흔들다리' 콘셉트를 유지해 구름산책로와 차별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17년 준공할 구름다리에 38억 원 상당의 사업비가 들어갈 전망이다.

해운대 동백섬 부산 대표 관광지로 탈바꿈

운촌항, 동백섬 APEC 누리마루하우스 등 연계, 친수형 marina 공간으로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 군사시설이 빠져나가고 부산 대표 관광지로 탈바꿈된다. 부산시 건설본부는 수영부두를 경남 창원시 진해구로 완전히 이전하는 계획과 공사설계 등 모든 행정절차를 지난달 마무리했다. 수영부두의 군사시설과 장비는 내년 8월 말까지 진해구로 남김없이 이동한다.

시는 수영부두 이전에 드는 사업비 215억45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투입한다. 그 대신 계류장(3750㎡) 아적장(4410㎡) 등 감정가가 215억4500만원인 수영부두 군사시설 3만5105㎡ 전체를 국방부로부터 넘겨받는다. 시는 애초 수영부두 대체시

설 입지로 부산 가덕도 서편 백운포를 검토했지만, 국방부 등과의 협의 과정에서 진해구와 감만부두로 변경했다.

이처럼 대체시설 공사가 준공하면 수영부두는 건립된 지 65년, 시와 국방부가 협약을 맺은지 8년만에 '동백섬 시대'를 마감한다. 시가 진해구와 감만부두에 내년 8월 말까지 대체시설을 완공해 기부하면, 국군수송사령부가 1달 뒤인 12월까지 수영부두를 비워줘 이 일대가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6.25전쟁 때인 1951년 군 작전부두로 건설된 수영부두는 그동안 동백섬 일원 자연경관을 가로막아 시민의 원성을 샀다. 이 때문에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수영부두 반환 요구가 빚발쳤다. 수영부두는 현재 일부 공간이 주차장 등으로 개방된 상태다. 시는 수영부두를 지난달 19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마리아나항만으로 지정된 운촌항, 동백섬 APEC누리마루하우스 등과 연계해 친수형 거점 마리아나 공간으로 꾸밀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체시설 공사를 하루라도 빨리 마쳐 동백섬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용 수석기자

해운대 운촌 마리아나항, 해양관광 볼거리항으로 변신

해양수산부는 거점형 마리아나항(종합 해양레저시설을 갖춘 구역) 개발사업 민간공모 우선협상 대상자로 부산 해운대 운촌마리아나항과 경기도 안산, 충남 당진, 전남 여수 등 4곳을 선정했다. 해수부는 오는 10월 중 이들과 본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해운대 운촌마리아나항은 지역업체인 (주)삼미와 (주)삼미건설이 사업주체로, 동백섬 앞 '더베이101' 주변에 계류장 등을 갖추고 요트와 보트 사업을 하고 있다.

운촌마리아나항만의 경우 도심 접근성, 교통 편의성, 해양관광 볼거리 등 기초 인프라 연계성이 우수해 거점형 개발사업 대상 최적으로 평가됐다. 또 현재 계류장 등을 갖춰 요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 거점형 마리아나항만으로 선정됨에 따라 최대 300억 원의 국고 지원금을 받게 됐다. 삼미 측은 지원금을 너울파도와 태풍

피해 등을 막기 위한 방파제 건립과 요트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마리아나센터 건립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방파제와 마리아나 센터가 건립되면 현재 운촌항을 기반으로 한 요트 등 레저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대가 번지점프 등 다양한 레저시설을 갖춘 종합 해양레저타운으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국비 외에 시비와 민간개발사업비를 추가로 투입, 인근 군부대 부지에 마리아나센터와 편의시설 등을 건립해 기부채납 받은 뒤 운영권을 삼미 측에 넘기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과 협의회 해운촌항을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거점형 마리아나항으로 만들겠다"며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마리아나항만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부산을 해양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신세계, 센텀시티에 대규모 세계 최고수준 특급호텔 건립

백스코 맞은편 일본계 세가사미도 호텔건립 추진 중

신세계가 백화점뒤쪽에 확보된 센텀시티부지 A, B, C 세 곳 부지중 C부지 1만6천512㎡ 규모의 부지에 특급호텔을 건립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호텔형태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컨설팅 용역업체에 의뢰했다.

신세계는 2009년 A부지 4만711㎡에 세계 최대 백화점을 개점했다. 신세계 센텀시티 뒤편 B부지 1만5천500㎡에는 내년 초 개점예정인 복합쇼핑센터를 건립중이다. C부지는 현재 백화점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세계는 B부지 쇼핑센터

개정한 뒤 C부지 호텔 건립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신세계는 세 부지인 호텔건립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내년 설계 등 준비작업을 거쳐 건축계획 안 심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같은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18년 말 또는 2019년 초에 완공할 것이라는게 신세계측의 설명이다.

신세계는 또 이 호텔의 규모와 관련해 기존 부산지역 특급호텔들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수준의 특급호텔을 건립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민락동 미월드 부지 '6성급 호텔·레지던스' 11월 착공

A블럭 : 객실 326개, 대형 마이스홀 1개, 중형 2개, 소형 5개와 비즈니스홀

B블럭 : 객실 221개의 브랜드 레지던스호텔, 전 객실 오픈테라스로 구성

부산 수영구 민락동 옛 놀이공원에 호텔개발사업 시행사인 지엘시티건설(주)은 "미월드 2만8천㎡ 부지에 6성급 특급호텔과 브랜드 레지던스호텔을 오는 11월 착공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사업비는 총 6천억 원대다. 완공은 2019년 5월이 목표.

미월드 부지 호텔개발사업은 A블럭과 B블럭으로 나눠 진행된다. A블럭엔 객실 326개를 갖춘 6성급 특급호텔로 조성되며 마이스(MICE) 산업 지원시설로 쓰일 예정이다.

부대시설로는 대형 마이스 홀 1개, 중형 마이스 홀 2개, 소형 마이스 홀 5개, 비즈니스센터를 갖춘다.

B블럭엔 지하 4층~지상 39층 객실 221개로 구성된 브랜드 레지던스호텔이 들어선다. 전 객실이 복층형 구조와 오픈 테라스로 구성된다. A블럭의 6성급 특급호텔에서 맞춤형 호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엘시티건설(주)은 브랜드 레지던스호텔 시공권을 놓고 국내 메이저 건설사인 H사와 협상을 진행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타딘 해운대 부산' 오픈

관광객을 비롯해 한국에 중·장기로 거주하는 다국적 기업의 외국인 주재원, 글로벌 기업인 등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글로벌 서비스드 레지던스 '사타딘 해운대 부산'이 지난달 문을 열었다. 세계 최대의 글로벌 서비스드 레지던스 운영사인 '더 에스콰트 리미티드'가 직접 운영하는 레지던스는 해운대구 해운대로에 총 468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시설 등이 완비된 주방과 거실, 침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탁시설도 갖춰져 있다.

사타딘 해운대 부산은 해운대 관광특구에 자리 잡아 부산도 시철도 2호선 해운대역이 바로 앞에 있고 시외버스터미널, 광안대교, 장산터널, 원동IC 등이 인접해 부산 곳곳으로 이동 가능하다. 사타딘 해운대 부산 관계자는 레지던스 주변으로 부산 요트경기장, 장산, 해운대 온천, 솔밭예술마을 등 부산의 대표 관광지 등이 있어 국내외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외국 바이어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도 투숙객에게 내집과 같은 편안한 공간을 제공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영도대교 도개시간이 지난 15일부터 낮 12시에서 오후 2시로 바뀐다.(사진은 영도다리 야간 도개 모습)

영도대교 도개 낮 12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

부산시는 매일 낮 12시부터 15분간 진행하던 영도대교 도개 행사를 지난 15일 부터 오후 2시 변경했다.

시는 도개행사 시간 변경으로 주변 관광지와와의 연계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개관람 → 점심 → 관광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관광패턴에서 >점심 → 도개관람 → 주변 지역 관광 >도개관람 → 주변 지역 관광 → 저녁식사 등 두 가지 관광패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령산 전망쉼터’ 새로운 관광명소 등장

해운대~광안대교~북항대교~영도까지 한눈에...시티투어버스 코스 포함돼

부산 풍광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황령산 전망쉼터가 개장됐다. 봉수대 아래쪽에 건립된 전망쉼터는 연면적 276㎡ 규모에 지상과 지하로 나뉘져 있다. 지하 1층 실내 전망대에 들어서자 동유리창 너머로 부산 곳곳을 내려다볼 수 있으며 카페테리아에서 커피와 음료, 간단한 식사 등을 판매하고 있다.

전망쉼터는 시원스레 뻗은 광안대교, 마린시티 등 부산 시내가 한 눈에 들어온다. 전망쉼터는 방문객 누구나 무료

로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월요일은 휴무다.

부산시티투어버스를 코스에 포함시켜 시민과 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으며, 이밖에도 부산항과 부산진구, 금정구, 영도 등 3개구를 모두 볼 수 있는 전망데크를 추가로 설치, 접근성을 보다 넓게 조망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어,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문화공연 결들인 ‘초량야바구 야시장’ 부산 새 명물로 등장

국내외 관광객 다시 찾고 싶은 야간 관광명소로 10월 16일부터 7시~자정까지 운영

‘부평강동야시장’에 이어 ‘초량야바구 야시장’이 문을 연다. 부산 동구는 최근 초량야바구 야시장 조성 계획 세부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야시장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초량야시장은 오는 10월 16일 차이나타운 축제와 연계해 첫 선을 보이고 연중 상설로 매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 초량동 새부산병원에서 물레병원까지 120m 구간이다. 총 25개의 매대가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들어선다. 명칭은 주민 투표에서 70%의 지지를 받은 ‘초량야바구 야시장’.

인근 주민과 상인도 적극 협조했다. 야시장 조성을 위한 구간 도로통제에 80% 이상이 동의하며 기꺼이 길을 터준 것이다. 이와 함께 자율청소 실시와 교통소통 주차 안내 등도 주민과 상인이 돕기로 했다. 초량전통시장의 한 상인은 “야시장이 생기는 것에 기존 상인도 반긴다”며 “갈등 없이 문을 열어 시

장이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구는 시장 차별화를 위해 문화공연을 결들일 예정이다. 공연, 퍼포먼스, 이벤트 등의 소규모 축제를 더해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가 있는 ‘삼거리’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와 함께 야시장 상인을 상대로 친절교육과 위생관리교육을 지속해서 벌인다. 질서 유지 의무 등 관련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면 운영권을 박탈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유니폼 착용과 실명제 표시 등으로 전통시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로 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국제여객터미널 개장으로 동구를 찾는 관광객이 점차 늘 것으로 전망한다”며 “국내외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야간관광 명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무웅 수석기자

부산 市魚 고등어 브랜드화로 관광상품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이 맛보고 즐기는 고등어 거리 만든다

2011년 7월 6일 부산을 상징하는 시어로 지정된 고등어가 부산시와 부산디자인센터는 신선한·맛있는·재미있는 부산 고등어라는 3가지 주제로 2단계 시어 브랜드화 사업을 내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사업비는 49억 원. 시는 이를 위해 시청 국제소회의실에서 14개 사업 참여기관 관계자 회의를 열어 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 사업에는 시를 비롯해 부산디자인센터 중구, 서구, 대형선망수협, 부경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문화재단,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관광공사, 부산발전연구원, 데비아이, 롯데리아 등 14개 기관이 참여한다.

브랜드 사업의 첫 주제인 신선한 부산 고등어는 이력추적,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 위생적인 부산 고등어 품질인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경대는 고등어 운반 선별 포장시스템을 개발하고, 표준 레시피 발굴, 조리 종류별 요리법 개발, 베이커리 형태의 고등어 전문점 운영을 추진한다. 롯데리아와 해운대 데비아이는 고등어 전문요리를 개발해 메뉴로 판매할 계획이다.

부산 고등어를 스토리텔링 개발, 문화자산으로서 고등어 이미지 확산, 고등어 거리(중구 용두산공원~서구 충무동~부산공동어시장~송도해수욕장) 조성, 고등어 체험·홍보관 설치 및 운영, 고등어 연계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진다.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학 관점에서 고등어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부산관광공사는 고등어를 주제로 한 관광상품을 만들기로 했다.

시 수산유통가공관계자는 “다양한 고등어 콘텐츠를 개발·상품화해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맛보고 즐기는 거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올해 바다미술제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개최

17개국 36팀, 36점 작품, 관객참여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작품전시도



사진은 2013년 송도 바다미술제

2015 바다 미술제가 올해는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개최됐다. 올해는 관객 참여와 퍼포먼스, 협업, 발굴 등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유형의 작품을 전시해 서부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최근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30일 동안 다대포해수욕장에서 펼쳐지는 2015 바다미술제 방향과 작품, 주요 특징, 부대 행사 등에대한 설명회를 했다. '보다-바다와 씨앗(See-Sea & Seed)'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미술제에는 모두 17개국에서 36팀이 참가해 3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출수 연도에 열리는 바다미술제는 그동안 해운대, 광안리, 송도를 거쳐 올해는 서부산권에 문화 향기를 스며들게 한다는 취지로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펼쳐졌다.

미술제는 크게 초대작가들의 작품으로 이뤄지는 '본전시'와 뉴질랜드 기업이 대형 연날리기 퍼포먼스를 펼치는 '특별전'으로 구성됐다.

미술제 하이라이트인 본전시는 산포하는 씨앗, 발아하는 씨앗-상상발굴 프로젝트, 자라는 씨앗, 자라는 바다 등 네 개의 섹션으로 나뉜다. 이는 미술제 주제에 맞춰 예술의 씨앗이 척박한 다대포 해수욕장의 모래에서 발아해 새로운 예술이 창조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번 미술제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작품이 눈에 띈다. 먼저 경계를 넘나드는 협업이다. 오태원 작가는 '천 개의 빛, 물방울'에서 고은 시인과 함께 작업하고 노주환 작가의 '사랑해요

삼천 개의 꿈'은 전국 어린이들이 만든 3000개의 바람개비로 제작된다. 고은 시인은 미술제 기간 자신의 문학 세계에 관한 특강을 펼친다.

미술과 고고학 전공 학생들의 협업도 눈에 띈다. 여기에 물운대 능선에 투사하는 레이저 아트 등 야외 미술제에서 보기 어려운 미디어 아트도 선보인다.

관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작품도 많다. 관객의 소망 쪽지를 나무에 걸어 작품을 완성하는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의 부인 오노 요코의 '소망나무'가 있는가 하면 '상상발굴 프로젝트'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올해 미술제는 광활한 다대포 해수욕장을 활용해 산책로와 해변, 바다뿐만 아니라 부산교통공사가 진행 중인 풍경까지 전시 공간으로 삼았다.

이효영 기자



가야 김수로왕 인도공주 허황옥 신행길 재현 축제

김해 가야 테마파크와 대저 생태공원에서 가야문화체험존, 인도문화 등 소개



허황후 신행길 재현 모습

가야와 인도문화가 만나는 '2015 허황후 신행길 축제'가 김해 가야테마파크와 대저 생태공원에서 열렸다. 첫째날인 5일 경남 김해 가야테마파크에서 열린 개막식은 2천 년 전 인도 아유타국 공주로 가락국 김수로왕의 왕비가 된 허황후와 김수로왕이 행차하는 모습을 재현한 퍼레이드로 꾸며졌다.

재연행사가 끝난 뒤에는 김해시립가야금 연주단의 공연과 인도전통춤공연 방그라(Bangra)댄스, 크로스오버 국악가수 권미희의 축하 공연이 잇따랐으며, 둘째 날인 6일엔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축제가 이어졌다. 가야문화라는 공통의 문화자원을 가진 김해시와 부산시가 상생을 약속, 이 같이 진

행됐다.

부산서 열리는 축제의 백미는 낙동강을 배경으로 재현되는 허황후 신행길이다. 삼국유사가 전하는 대로 허황후를 태운 배가 망산도에 도착하면 수로왕과 장유화상 일행이 허황후를 마중하는 장면을 성대하게 재현했다. 삼국유사에는 2천 년 전 인도 아유타국 부왕이 하늘나라 상제의 지시를 받고 딸 허황옥을 가락국 시조인 수로왕의 배필로 보내며 붉은색 옷과 붉은색 깃발을 단 배를 띄웠다고 나와있다.

신화와 역사가 뒤섞인 허황후의 여정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결혼'이니 이야깃거리도 많았다. 기존 관행화된 축제의 틀을 벗고 관광객들이 축제의 의미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형식의 전시와 체험행사로 꾸렸다. 이틀간 양 도시에서 허황후 신행길 재현 행렬을 비롯해 어왕후의 사랑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 인도와 가야문화 체험존, 인도문화를 소개하는 영화·사진전시회 등이 열렸다.

TPO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위해 서울에서 팸투어단을 모집하고, 서포터즈단이 중국인 유학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번 축제를 김해시의 역사·문화콘텐츠와 부산시의 관광 인프라를 결합한 국제적인 문화축제로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세계관광시장 큰 손 모슬렘 관광객 유치 교육 실시

부산시와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모슬렘 관광수용태세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지역 관광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이슬람교 문화 및 관광시장, 모슬렘 관광객 유치 기반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방한 모슬렘 관광객이 점차 증가하고, 이들이 세계관광산업의 '큰손'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모슬렘 관광객 유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슬렘 인구는 현재 16억 명에 달하며 2025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한 모슬렘 관광객은 2010년 27만3220명에서 지난해

75만 1931명으로 5년 새 175%나 급증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말레이시아 관광객은 5만1772명으로, 1만7700명이 다녀간 2013년에 비해 200%나 급증했다. 인구의 70%가량이 모슬렘인 말레이시아는 부산 직항 노선이 운영되고 있어 유일하게 출입국 통계가 잡히는 모슬렘 국가다.

시 관계자는 "모슬렘이 편안하게 부산을 관광할 수 있는 수용태세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문화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수영강~광안리해수욕장 일원 수륙양용 버스 운행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

부산시는 내년부터 해상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영강~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 수륙양용버스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수륙양용버스 1단계 노선은 해양수산부 '수륙양용선박검사 지침' 상 운행이 가능한 수영강을 중심으로 광안리 해변에서 출발한 수륙양용버스는 수영강에서 입수해 수상을 직선 형태로 왕복한 후 다시 육상으로 올라와 영화의전당-센텀시티-벡스코-시립미술관-광안대교-삼익아파트를 거쳐 다시 차고지(민락 매표지)로 돌아온다. 운행시간은 수상(5km) 25분, 육상(15km) 35분 등 1시간 가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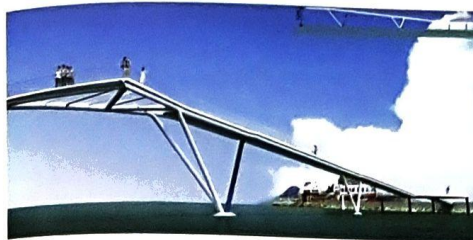
시는 현재 광안리 앞바다에 대한 운항 금지 조치가 풀리면 수륙양용버스 노선(2단계)을 해상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수륙양용버스는 광안리해수욕장 끝 지점에서 입수해 바다와 강을 따라 좌수영교까지 올라간 뒤 영

화의전당에서 삼익아파트에 이르는 육상 구간을 달린다. 수상과 육상 구간 전체 길이와 운행 시간은 1, 2단계가 똑같다. 국내에서는 지난 5월 인천시가 최초로 경인운하를 오가는 수륙양용버스 운영을 시작했지만, 해상을 운항하는 사례는 부산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시는 10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해수부에 수륙양용선박 검사지침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해 광안리 해상에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시의 전략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광안리 해상에 대한 안전성 검증 자료도 준비했다.

시관계자는 "광안리 일원은 바다와 강이 연결되고 광안대교·마린시티의 경관이 수려해 수륙양용버스 운영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사포 해안에 하늘전망대 조성 추진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해안을 가로지르는 길이 130m의 하늘길이 앞장 전망이다. (해운대구 제공)

일출과 일출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해운대 청사포에 길이 130m, 폭 2m의 하늘 전망대가 조성될 전망이다.

해운대구는 하늘전망대 조성을 위해 지난 16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하늘 전망대는 지난 2009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토환

경디자인 공모사업 중 하나로 추진된다. 해운대구는 총 13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방파제 경관 조명, 주차장, 창작예술 공방, 해상보도교 등을 건립했다. 이 중 남은 44억 원의 예산 활용처를 모색하면서 하늘 전망대 조성 사업이 거론됐다. 구는 길이 130m, 폭 2m 규모로 청사포 해안을 가로지르는 하늘 전망대를 만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하늘 전망대가 건립되면 청사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청사포 마을 자체가 도심과 가까운 어촌으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늘 전망대 조성 사업으로 관광객은 바다 한가운데서 일출이나 월출을 구경하거나 한적한 어촌 마을의 풍광을 즐길 수 있다.

구는 주민설명회를 토대로 하늘 전망대 사업 구상을 마친 뒤 다음 달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뒤 이르면 오는 12월 설계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 상반기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여행지는 일본 '오사카'

세계적인 호텔예약사이트인 호텔스닷컴이 조사한 호텔 가격지수(Hotel Price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은 관광지는 오사카였다.

홍콩이 그 뒤를 따랐고 일본 도쿄(東京), 프랑스 파리, 태국 방콕, 대만 타이베이, 이탈리아 로마, 싱가포르, 괌 타이밍, 일본 후쿠오카(福岡) 등의 순이다.

이처럼 상위 10위 이내 지역에 일본이 3곳이나 포함됐는데 이는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화약세가 장기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여행경비가 저렴하게 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한국인 여행객이 1박당 가장 많은 호텔 비용을 지불한 국가는 괌(22만5천739원)이었다. 스위스(21만802원), 잉글랜드(20만628원), 마카오(19만8천202원), 미국(19만6천233원), 멕시코(19만1천854원)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사람이 1박당 가장 많은 객실료를 지불한 도시는 멕시코 칸쿤(32만5천112원)으로 조사됐다.

태국 코사무이(28만7천981원), 하와이 호놀룰루(27만7천411원), 미국 뉴욕(26만2천31원), 미국 보스턴(23만6천491원), 미국 샌프란시스코(22만7천850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명품 관광콘텐츠는 해양관광이 으뜸

분야별 경쟁력 설문서 1위 차지, 비즈니스·쇼핑·보건으로 뒤 이어

부산발전연구원은 최근 부산의 학계 및 유관기관, 관광업체 종사자 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지역 명품 관광콘텐츠의 분야별 경쟁력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총 18개 관광유형을 대상으로 지역 매력성, 시장 경제성, 파급 효과성 등 3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종합평가에서 해양관광 분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비즈니스, 쇼핑, 보건으로, 축제 이벤트, 레포츠, 야간, 한류, 테마파크, 거리 관광이 10위권 내에 들었다. 반면 전통공예 관광이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테마길기차, 토크스테이, 박물관 관광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해양관광은 항목 중 지역 매력성과 시장 경제성(공동 1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비즈니스 관광은 시장 경제성(공동 1위)과 파급효과성에서 1위를 차지했다.

부발연 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저마다 특화상품을 내놓고 치열한 관광역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부산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산하면 떠오르는 '킬러 콘텐츠'를 육성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0월 말 용역 최종 보고회를 통해 관광콘텐츠의 우선순위를 매긴 뒤 육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방침이다..

김해국제공항 개항이래 미주노선 운항 개설

부산~미국 첫 직항 노선 뜬다. 12월 1일부터 주3회 왕복정기편

김해공항이 국제선 항공 수요 증가세에 따라 장거리 국제노선인 부산~로스앤젤리스를 잇는 직항노선에 국토교통부가 사업허가를 했다.

최근 한국항공공사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미국 국적 항공사 내셔널에어라인에 김해~로스앤젤리스(LA) 노선 국제운송사업을 허가했다.

내셔널에어라인은 B757 항공기를 이용해 12월 1일부터 주 3회 왕복하는 정기편 항공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내 승무원을 대부분 한국인으로 운영하고 기내식을 국내 항공사처

럼 한식 위주로 서비스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셔널에어라인 측은 한국총판을 운영할 업체를 'PWA'로 선정해 보안계획수립 심사 승인과 각종 세부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김해공항 측도 공항 슬롯 배정 문제 등 미주 직항노선 개통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했다.

김해공항에서 미주 직항노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개항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

한국항공공사 관계자는 "정식 취항을 위해서는 국토부 승인 외에도 슬롯과 공항 보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김해·양산 낙동강 뱃길 복원해 관광루트로

낙동강 뱃길을 복원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김해와 부산, 양산시가 순차적으로 관할 구역의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갔다. 오는 2017년 말이면 3곳의 선착장에 배가 접안하고 관광객이 배에서 내려 3개 지역을 둘러보는 광역 관광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내년 2월 완료하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대동화명대교 인근에 대동선착장이 만들어진다.

이곳은 예전에 부산 구포와 김해 대동면을 운항하던 배가 접안하던 나루터가 운영됐다. 대동선착장은 수위에 따라 움직이는 부유식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낙동강변인 생림면 마사리와 상동면 매리 1만5000여 m²에는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화초단지과 미로공원을 조성한다.

부산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추진 중인 하천 부지 사

용 시설 설치 협의를 완료하고 이달부터 낙동강 뱃길 복원 관광 자원화 사업 용역에 나선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 2월부터 이미 설치된 을숙도 선착장 인근에 캠핑 시설과 어촌체험 시설, 특산물 판매 시설을 갖춘다.

양산시는 오는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부터 물금선착장 인근에 야생화 단지와 갈대숲 둘레길, 물금 뱃꽃길 조성에 들어가 2017년 말 모두 완공한다. 양산 역시 물금선착장은 이미 설치한 상태다.

사업비는 각 시가 13억1900만 원씩, 모두 39억5700만 원을 투입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뱃길 복원과 함께 3개 시를 버스 등으로 둘러볼 수 있게 광역관광코스도 개발할 계획"이라며 "또 현재 부산의 을숙도 선착장에서만 이뤄지는 승·하선을 뱃길 복원과 함께 김해와 양산에서도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부산관광회관 건립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부산관광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찬 관광도시 부산 건설을 위하여 우리 후대에 전해 줄 확고한 신념으로 부산관광회관 건립에 즈음하여 회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산관광회관 건립 기금을 출연하여 주신 분들

총 기금 적립액 (2015년 9월말 기준) ₩218,010,626

2013년도 기금 적립내역		2014년도 기금 적립내역	
회장	이태섭(게스후? 대표) 1억원	회장	이태섭(게스후? 대표) 500만원
부회장	신도억(씨클라우드호텔 대표) 500만원	부회장	신도억(씨클라우드호텔 대표) 500만원
부회장	강석환(두모씨앤씨 대표) 500만원	부회장	강석환(두모씨앤씨 대표) 200만원
이사	조용황(한국명품민예사 대표) 200만원	부회장	김해룡(부산해상관광 대표) 200만원
회원	성호영(한국민속식품 대표) 200만원	부회장	강준구(진성관광여행사 대표) 100만원
회원	박동준(매일소핑 대표) 200만원	부회장	장순복(대륙항공여행사 대표) 100만원
회원	이수태(앤소핑 대표) 200만원	부회장	서학영(동방여행사 대표) 100만원
회원	이기형(티플러스 대표) 100만원	이사	김성현(부산롯데호텔 총지배인) 200만원
2015년도 기금 적립내역		이사	조용황(한국명품민예사 대표) 100만원
사무국 직원 일동	100만원	회원	성호영(한국민속식품 대표) 100만원
회원	정진수(팬더투어 대표) 10만원	회원	박동준(매일소핑 대표) 100만원
이사	이봉순(리컨벤션 대표) 100만원	회원	이수태·이광신(앤소핑 대표) 100만원
회원	장일종(아크투어 대표) 300만원	협회 사업수입 기금(이자포함)	₩69,610,626
회원	김정연(관광호텔 42번가 대표) 30만원		
이사	문영훈(미동양소정 대표) 50만원		
이사	김영재(VIP국제여행 대표) 50만원		

부산관광을 선도하는 강한 협회를 만드는데 모든 회원들이 십시일반 동참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은 협회 발행 각종 간행물과 회관 건립 초석에 담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회관건립기금 조성 계좌-

부산은행 101-2024-4232-05 예금주 : 부산관광협회
(입금 후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손비처리용 영수증을 발급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한 번은 가야할 그곳 미얀마 황금바위

바람되어 어디론가 떠다니는 영혼처럼 살아가는
나에게 황금바위 가는길은 축복의 길이였다.
“죽기전에 한 번은 가보아야 한다는 황금바위
가는 길은 남인도처럼 아름다웠다”



부산시관광협회 부회장 장순복
(대륙항공여행사 대표)

미얀마는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인도차이나반도 국가 중 가장 큰 나라이다. 인도양 쪽으로
2,832km의 해안선을 끼고 남쪽으로 2,090km, 동서 925km
로 영국과 프랑스를 합쳐 놓은 정도의 크기다.

135개 이상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미얀마의 주요 종족은
버마족, 친족, 께친족, 산족, 께야족, 께잉족, 몬족, 여카잉족 등
이다. 70% 이상이 버마족이라는 이유로 국명으로 사용하다
1989년 빠르고 강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미얀마로 국명을
바꾸었다. 5천 5백만 인구 가운데 약 85%가 불교 신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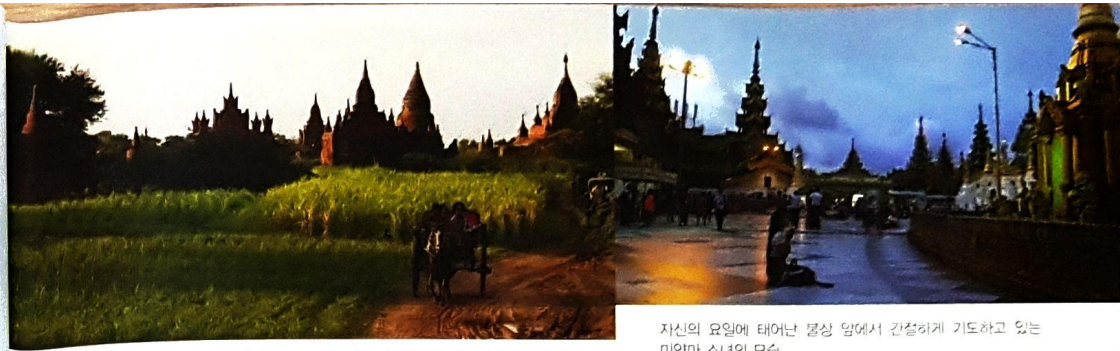
남자들은 절에서 수행을 하는 단기출가가 관습이자 의무사
항이다. 출가 승려만 약 40만 명에 이르고 5만개가 넘는 사원과
전국에 흩어져 있는 파고다, 즉 불탑만 400만개가 넘는다.

기원전 1세기 때부터 이 땅에 살기 시작했다는 소수 민족
가운데 우리의 풍습 가운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줄다리
기를 하는 민족을 비롯하여 수많은 종족들이 모여 사는 미얀
마는 여러 종족의 이동역사와 함께 한다. 세계의 풍습 가운데
가장 잔인함을 보여주는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목
에 링을 달고 사는 바다웅족의 여인들 모습은 지구촌 나그네
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이국적 감흥을 선물한다.

날렵한 작은 배를 타고 폭바로 선 채 한 발로 노를 저어가
면서 호수의 표면을 작대기로 힘껏 때린 후 놀라서 떠오른 고
기를 그물을 던져 잡아 올리는 인타족의 고기 잡는 모습은 해
호의 인레호수에서만 볼 수 있는 경이로운 풍경이다.



미얀마 불교성지 가운데 으뜸이라 불리우는 황금바위의 모습.
바위 한가운데를 때려 뒤 부처님 머리키름을 불인했다.



자신의 요일에 태어난 불상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미얀마 소녀의 모습

파냄새 없는 인류의 유산이라 부르고 있는 불교 공양탑의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비간의 탑군 사이를 마차를 타고 돌고 있는 모습.

9월 11일 태국의 스완나품 공항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빗속을 향해 솟아오르는 비행기 속에서 나는 미얀마라는 기억을
붙잡고 흔들리고 있었다.

1993년 삼중스님과 함께 아웅산 순국열사 추모 10주기 위령
제 봉행참가단 모집을 하다 세종연구소로부터 우리 민족의 아픔
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강력한 항의에 모집을 중단
했다. 1996년 한국, 미얀마 친선협회 사절단을 인솔했을 때의
참담함은 잊을 수가 없다.

친선의 밤 만찬장에 미얀마 인사들이 너무 많이 참석하는 바
람에 만찬 비용이 천문학적이었다. 미얀마 종교성 장관, 미얀마
한국 대사 등 미얀마의 VIP 50명만 모시기로 했는데 초청을
대행했던 한국 무역회사사원이 150명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바
람에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친선협회장이었던 스님이 나 물라
라 하는 바람에 버스에 올라가 눈물로 하소연하며 돈을 거두었
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당시로서는 거금이었던 US1500\$을 여
행사가 지불할 수밖에 없는 여처구니없는 일이었다. 미얀마 군
장성들의 고평 나들이 때문에 방콕행 탑승권을 빼앗겨 하룻밤을
양곤에서 보내는 바람에 조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놓칠 뻔했
던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분노로 아직 남아있다.

1983년 10월 9일 서남아시아, 대양주 6개국(미얀마, 인도, 스
리랑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순방길에 올랐던
전두환 전대통령의 첫 방문지인 미얀마에서 공식, 비공식 수행
원 17명이 산화한 아웅산 묘역을 폭파시킨 북한인민군 경찰국
소속 특수부대요원 강민철 대위와 함께 미얀마 형무소에서 3년
넘게 갇혀 있었던 한 사나이의 절규는 전설로 남았다.

플라스틱 공장 건설, 음식점 건립, 중고차 매매 등 일확천금을
벌어보겠다는 술한 사람들을 미얀마로 이끌었던 그는 억울한 목
살이를 했다.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토사구팽(兔死狗烹) 시키는 한
국인들의 못된 버릇 때문에 죽을 직전까지 갔던 그는 신이 존재
하지 않았다면 죽음이라는 격랑 속을 헤쳐 나올 수 없었을 것이

라며 필자 앞에서 끼어들었다.

황금의 땅 미얀마의 상징 웨다곤 파고다, 부처님의 진신사리
를 모신 카바에 파고다 등 수많은 불교 유적을 볼 수 있는 양곤,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 보로부르 사원과 함께 세계3
대 불교 유적지로 2300여개의 탑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바
간, 미얀마 왕국시대의 최후의 수도로 큰바운 왕조가 남긴 왕궁
과 경운을 새긴 729기의 비석이 남아 있는 만달레이 등 미얀마
의 불교문화유산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으뜸에 황금바위
가 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보아야 한다는 황금바위 가는 길은 남인
도처럼 아름다웠다. 양곤에서 황금바위를 올라갈 수 있는 트럭
터미널이 있는 킨퐁까지는 차로 5시간, 서정적인데다 한 폭의
그림같은 풍경이 끝없이 펼쳐지는 바람에 이 길을 (諺)의 길이
자 순례의 길이라 이름지었다.

불완전한 자신을 데리고 멀리 순례를 떠나 자신에게 말을 걸
고 자신과 화해하는 순례의 길은 자기만의 고독함을 만나는 즐
거움이라더니, 바람이 되어 어디론가 떠다니는 영혼처럼 살아가
는 필자에게 황금바위 가는 길은 축복이었다.

킨퐁터미널에 도착하자 1회용 비닐 우의와 비닐 봉지를 팔려
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 것을 사달라며 매달리는 바람에 곤욕을
치루었다. 비가 오면 얼마나 오겠느냐는 편안한 마음으로 트럭
에 올랐다. 트럭이 출발하면서 쏟아지는 빗줄기는 장난이 아니
었다. 평생 맛아야 할 비를 한꺼번에 다 맞는 것 같았다. 물에
빠진 새앙쥐 꼴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는다. 들리는건 빗소리
와 극락정토로 가고야 말겠다는 서원(誓願)을 비는 나무아미타불
합창 소리였다.

옷을 입고 물 속에 들어 갔다 나온 것처럼 속옷까지 젖어 투
덜대자 산옹스님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씻겨 내려갔으니
업장소멸(業障消滅)이라 했다. 알아차림이 부족해 가슴에 와닿지
않았지만 감자기 기분은 좋아졌다.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부산 여행은 가을, 그곳엔 힐링!! '가을 섬; 패키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가을의 여유로운 휴식과 함께 지친 몸과 마음의 힐링을 도와 줄 (가을 섬; 패키지)를 선보인다. (2015. 9. 01~2015. 11. 30)

혜택은 객실 1박과 달빛 내린 해운대 해변이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과 함께 멋진 야경을 보며 나이트 스위밍과 따뜻한 스파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야외 오션풀 및 사계절 힐링 충전소 '오션스파 씨메르' 이용, 독일 명품 원목 키즈 교구 'HABA' 키즈 전용 라운지, 단일 공간 국내 최대 규모의 멀티콘솔 게임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존, 부산 야경 및 감천문화마을 등 부산의 이곳 저곳을 여행 할 수 있는

LEO(레오) 투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힐링의 계절 가을 시즌(9/1~11/30)을 맞이해 태국 친환경 아로마 스파 브랜드 'THANN(탄)'의 아로마 디퓨저 향기 체험과 함께 음악과 독서 등을 경험 할 수 있는 신개념 힐링 공간 오션 풀 '다독' 라운지와 오션 스파 씨메르의 자스민 볼러섬 솔트 베스(Jasmine Blossom Salt Bath)도 함께 만나 볼 수 있다.

패키지 가격은 21만원(세금 봉사료 별도)부터 시작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객실 문의 및 예약 051-749-2111~3

롯데호텔 부산

힐인은 기본! 갤러리식 리셉션장에 레드카펫 밟는 호사까지~ 롯데호텔부산, 워딩 고객 위한 '판타스틱 프로모션'

롯데호텔부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판타스틱(Fantastic) 워딩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적용 대상은 기간 내 200명에서 400명까지의 하객 규모를 보증하고 호텔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예식을 올리는 고객이다. 호텔은 해당 고객에게 워딩 홀 절반 규모의 리셉션 장소를 별도로 꾸며 제공한다.

리셉션장에는 영상을 틀 수 있는 대형 스크린, 신랑 신부의 사진을 넣을 대형 휘장, 하객 1인당 1잔의 웰컴 주스, 갤러리 테이블, 꽃 등의 기타 장식이 포함된다. 특히 리셉션장 입구부터 본 홀 입구까지 이어지도록 레드카펫을 깔아 특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외, 신랑 신부 '클럽 프리미어 룸' 1박, 혼주 차량 빌렛 주차, 공항 센터, '롯데패밀리클럽카드' 발급

등 롯데호텔부산에서 결혼하는 고객에게 기본으로 주어지는 특전들 또한 중복하여 제공한다.

한편, 롯데호텔부산은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각각 한 컵의 예식만 진행한다. 따라서 '해치우기' 식으로 예식을 치른 후 홀을 내어 주기에 바쁜 일반 예식장을 이용할 때와는 달리, 길게는 3시간 남짓 여유롭게 식을 진행할 수 있다. 꽃 장식 등 분위기 연출이 철저하게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결정되는 점 또한 롯데호텔부산 예식 서비스의 특징적이다.

상담을 받으려면 요일에 관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이내에 호텔 내 전담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및 예약: 롯데호텔부산 연회예약 051-810-6500

HAERUNDAE GRAND HOTEL

해운대그랜드호텔

해운대그랜드호텔 1층에 위치한 로비라운지에서 10월 31일까지 샴페인과 와인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샴페인과 와인이 더 어울리는 계절, 라운드의 가을에 함께 하면 좋을 행복한 맛을 곁들이 이번 프로모션은 프랑스 상파뉴 지역의 브랜드로 축하의 자리에 자주 사용되는 세계적인 샴페인인 모엣 상동 임페리얼(15만원)과 '숲'이란 뜻의 스페

인어로 칠레의 대표적인 와인인 와인 컨슈머 리포트 및 로버트 파커 점수 등 화려한 수상경력을 가진 아르볼레다 까베르네 소비뇽(76,000)을 특별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으며, 라운드 타파스 플래터와 치즈 과일 플래터가 준비되어 있다.(35,000원~37,000원)

문의 : 로비라운지 [라운드] (051) 740-0615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은 해운의 인레호수 트레저 리조트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관광객들과 함께 한 필자의 모습.

실악산의 흔들바위처럼 절벽 위에 얹힌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황금바위

해발 1100m 산 정상에 있는 황금바위까지는 걸어서 6시간, 트럭으로 40분 거리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했다. 소리껍데기처럼 생긴 벼랑길을 최고 속도로 달린다. 터미널에 붙어 있던 글귀가 떠올랐다. 생명 보함이 들어 있으니 안심하라는 안내문을 왜 붙여 놓았는지 알 것 같았다. 하루 10시간씩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강행군하는 유럽일주도 잘 버티는데 이 정도 쫄이아 생각하면서도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빗속을 뚫고 올라선 짜억토산 정상 휘돌아 나가는 구름 속에서 황금바위가 나타났다. 황금바위는 실악산 울산바위 가는 길에서 만나는 흔들바위처럼 보였다. 절벽 위의 낭떠러지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거대한 바위에 수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금박을 입히는 바람에 황금바위라 부르고 있다. 황금바위 전설은 인도 부다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부처를 만난 미안마인들이 부처님으로부터 얻은 8개의 머리카락을 모셨다는 스테다곤 파고다의 전설과 함께 한다.

11세기 때 이 곳을 통치하던 '티사'라는 왕은 부처님의 머리카락 한 울을 모셔왔다는 수도승을 만나게 된다. 수도승은 동굴에서 기도를 하다 부처님께서 친히 머리카락 한 울을 뽑아주었는데 자신의 머리카락에 묶어서 가져왔다며 왕께 바치겠다고 했다. 수도승은 머리카락을 바치며 한가지 요구를 했다. 자신의 머리를 담은 바위를 찾아 그 곳에 모셔달라는 것이었다. 왕은 정령들의 도움을 받아 바다속에서 수도승의 두상을 담은 바위를 찾아내 절벽 위에 올려놓았다. 바위를 운반하던 배는 바위를 내리자마자 돌로 변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받아 온 승려가 자기의 머리카락에 묶어서 가져왔다 하여 문중으로 승려의 머리에 얹어 운반된 불발이라는 뜻으로 카

아악-엘-티-로 부르다가 오늘 날에는 짜억티요라 부르고 있다. 티사왕은 높이 8m, 둘레 24m의 바위에 깊이 약 90cm, 넓이 약 15cm의 구멍을 뚫어 부처님의 머리카락을 담은 상자를 넣고 그 위에 황금으로 된 7.3m 높이의 탑을 만들었다.

안개가 자욱한 황금바위 앞에 섰다. 두 손을 벌려 바위를 꺼안고 소원을 빌었다. 11월에 출판될 놀랍고 신비로운 세계명소 책 좀 펴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힘껏 밀어 보았다. 한 명이 흔들나 수백명이 흔들나 그 흔들림이 일정하다는 실악산 흔들바위처럼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아무리 용을 써도 끄떡도 하지 않는다. 여성이 황금바위를 만지면 굴러떨어진다는 속설 때문에 여성들은 황금바위를 만지거나 파고다에 모셔진 불탑을 가까이에서 볼 수 없다.

날씨 때문에 태양의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황금바위를 볼 수 없을 것 같이 황금바위 사원 입구까지 나와 탁발승 사진을 찍고 있는데 구름 사이로 태양이 나타났다. 아, 신은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황금바위에 햇살이 비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합장을 했다.

황금바위 절벽 아래로 구름이 춤을 춘다. 나뉘던데 고려 땅에 태어나 금강산 한번 보고 싶네라고 했던 시구가 떠올랐다. 하늘 아래 가장 빼어난 금강산을 찾아 시를 읊고 화폭에 담았다는 시인 묵객이라도 된 듯 무릎을 치게 만드는 장엄한 운해(雲海)의 바다를 보지 못했다면 억울할 뻔 했다. 신이 그리는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 했던 황금바위 절벽에서 내려다 본 산과 계곡은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풍경으로 남았다.

13세기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문록에서 미안마를 황금의 땅이라 부르며 미안마의 아름다움을 예찬했다. 그들이 이루어낸 찬란한 황금문명은 불교 문화와 함께 한다. 신라인들이 꿈꾸던 불국토를 이룬 미안마는 한국에서 비행기로 5시간 50분 거리에 있다.

(계재된 사진은 필자가 직접 촬영)



가고시마 鹿兒島 : Kagoshima

가고시마는 일본 규슈(九州) 최남단에 있는 현(縣)소재지로 오스미·도카라·아마미 3군도를 포함한 현의 총면적은 9,167km²이다. 남쪽해안은 가고시마만으로 깊숙히 들어가 있으며 활화산인 오타케산(御嶽)은 원래 가고시마만에 있던 섬이었으나 1914년 폭발 후 동쪽해안과 연결됐다.

가고시마는 세계적인 활화산 사쿠라지마(櫻島)로 대표되는 풍요로운 자연, 메이지 유신 시대의 개성 넘치는 역사·문화를 가진 남규슈의 경제와 문화거점으로 발전해 왔다. 시내 각지에서 솟아나는 온천, 풍요로운 음식문화, 온화한 기후는 60만 인구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

연평균 19도의 온화한 기후로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거리에서는 다른 도시보다 앞서 녹화사업을 추진한 케도부지를 노면전차가 달리고 있고, '텐몬칸'과 교통 상업기능이 집중된 '가고시마 중앙역' 주변은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의 발길이 사계절 끊이지 않는다. 부산 롯데하이엔츠 프로야구단의 동계 전지훈련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위치와 교통 일본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가고시마는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와 인접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교류의 관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후쿠오카에서 1시간 17분이 소요되는 신칸센, 규슈 주요도시를 잇는 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교통망과, 주3편의 서쪽 직항노선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선을 보유한 가고시마 공항의 노선망 등 육지·바다·하늘의 교통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시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음식 가고시마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탄생한 지역 향토요리는 일본 내에서도 특별하기로 유명하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이 도시의 식재료로 만든 고구마 소주, 흑돼지 요리, 라면 등은 많은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한 '노면전차 케도부지 녹화' 2 가고시마 대표 향토 요리 3 동판요리 4 온천과 해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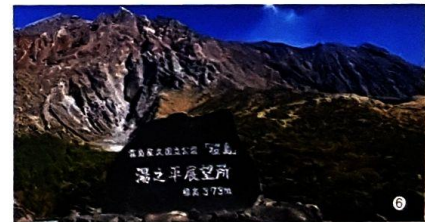


5 가고시마는 약 270곳에서 온천수가 나오는 일본에서도 으뜸하는 온천도시 6 사쿠라지마·킨코완 만(灣) 지오파크 7 페리

가고시마의 매력 가고시마는 에도막부 말기·메이지 유신으로 상징되는 개성 넘치는 역사, 문화를 비롯하여 긴코완 만(灣)과 사쿠라지마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또한 다양한 음식과 인구 60만을 배경으로 하는 교통·상업 기능의 집적 등 개성 있고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역사적으로 근대 일본의 산업발상지 가운데 한 곳으로서 메이지 유신을 이끈 인물들을 배출하는 등 근대 일본의 기초를 마련한 곳이다. 일본 최초의 공업지대인 '이소지쿠'의 '이진칸'과 '상고집성관' 등을 구성자산으로 하는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유산 규슈·아마쿠치 관련지역'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사쿠라지마·킨코완 만(灣) 지오파크 가고시마는 약 300만년부터 거대분화를 거듭해온 활화산 지역으로, 지금도 활발하게 분화활동 중인 사쿠라지마, 반세기 이상 주변지역에 화산재가 내리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화산이다. 분화활동으로 인해 모습이 변하는 다양한 지형과 그 곳에 서식하는 생물, 화산 기슭에서 생활하는 주민 등 모든 요소가 화산활동과 연관되는 '사쿠라지마·킨코완 만 지오파크'에서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활화산과의 공생'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웅대하고 매력 가득한 도시 경관 속에서 지질학적 다양성을 압축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휴식공간 워터프론트_킨코완 만(灣)은 가고시마에 사는 사람들이 매일 접하는 풍경으로, 바닷가에서 산책·낚시·이벤트 참가와 페리 승선 등 다양한 활동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이다. 또한 남북으로 46km에 달하는 워터프론트는 생활항로와 무역항 기능을 갖고 있으며, 더불어 관광 여객선의 기항지로서 친근하게 다가온다.



지오파크(GEO PARK)?

지오파크는 친근감을 갖고 지구를 배우는 여행지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장소이다. 산과 바다, 지질 등 자연에 관한 지식을 함께 공유하며 생태계와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내 생애 최고의 여행!

여행사의 여행공제회 가입여부 확인부터~

여행사 선택! 여행공제회에 가입된 여행사는 믿으셔도 됩니다

여행사의 **여행공제 가입여부** 를 꼭 확인하세요!



“여행공제회는 여행객 여러분들의 여행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 여행사의 공제가입여부만 확인하셔도
여행사로부터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비행기 요금도 되지 않는 상식 이하의 여행상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부실한 여행사로부터의 피해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공제회

서울시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대표전화 02-757-7491 팩스 02-757-7490

서울 02)757-7482 부산 051)463-3111 대구 053)746-6407 인천 032)432-4590 광주 062)233-6400 대전 042)226-8413 울산 052)275-2412 경기 031)255-8424 강원 033)242-0089
충북 043)231-5563 충남 041)631-5465 전북 063)287-6292 전남 061)285-0832 경북 054)745-0750 경남 055)212-1345~6 제주 064)742-8861 KATA 02)752-8692